

ISSN 1975-4922

2017 연차보고서

2018. 3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THE BANK OF KOREA

2017
연차보고서

2018. 3

「 한국은행법 」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



총재 서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이루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경제는 주요국과의 통상환경 악화, 북한 리스크 증대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과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였습니다. 물가는 수요 측면의 상승압력은 크지 않았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안정목표(2%)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한때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경제 여건 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에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가 더 확대되어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불안요인 발생 시 시장안정 유지에 힘쓰는 한편 호주 및 중

국과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한 데 이어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상설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중층적인 외환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로 확대하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는 등 금융안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와 국내 최초의 기념은행권을 발행하고,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별관 신축과 본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에 따라 본부를 태평로 임시본관으로 이전하고 신입직원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정도 축소 움직임과 같은 외부 불확실성과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경제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통화정책은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17년 중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수행과 경영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경제상황과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3월

한국은행 총재 이 주 열

이 주 열



금융통화위원회

의 장 이 주 열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차례〉

I. 한국은행 개요	1
1. 연혁 및 설립목적	3
2. 조직	5
II. 경제동향	11
1. 실물경제	13
2. 금융·외환시장	22
III. 업무현황	29
1. 중기전략	31
2. 통화신용정책	32
3. 금융안정업무	41
4. 발권업무	48
5. 지급결제업무	54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58
7. 조사통계업무	66
8. 국고 및 증권업무	74
9. 대외 커뮤니케이션	79
IV. 경영상황	89
1. 조직 운영	91
2. 재무 현황	99
부 록	115

〈차례〉 표

〈표 Ⅰ- 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6
〈표 Ⅱ- 1〉 세계경제 성장률	13
〈표 Ⅱ- 2〉 세계교역 신장률	14
〈표 Ⅱ- 3〉 경제성장률	14
〈표 Ⅱ- 4〉 소비동향	14
〈표 Ⅱ- 5〉 고정투자동향	15
〈표 Ⅱ- 6〉 경제활동별 성장률	15
〈표 Ⅱ- 7〉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15
〈표 Ⅱ- 8〉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16
〈표 Ⅱ- 9〉 고용 지표	17
〈표 Ⅱ-10〉 임금 지표	17
〈표 Ⅱ-11〉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을	18
〈표 Ⅱ-12〉 부동산가격 상승률	18
〈표 Ⅱ-13〉 경상수지 요약표	19
〈표 Ⅱ-14〉 주요 품목별 수출	19
〈표 Ⅱ-15〉 주요 품목별 수입	19
〈표 Ⅱ-16〉 서비스수지	20
〈표 Ⅱ-17〉 분원 및 이전소득수지	20
〈표 Ⅱ-18〉 권역별 주요 지표	21
〈표 Ⅱ-19〉 주요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22
〈표 Ⅱ-20〉 은행 여수신금리	24
〈표 Ⅱ-21〉 주요 금융기관 수신	25
〈표 Ⅱ-22〉 금융기관 대출	25
〈표 Ⅲ- 1〉 2017년 중기전략 목표 및 계획	31
〈표 Ⅲ- 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	34
〈표 Ⅲ- 3〉 한국은행 예금	34
〈표 Ⅲ- 4〉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내용	35
〈표 Ⅲ- 5〉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37
〈표 Ⅲ- 6〉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활동	40
〈표 Ⅲ- 7〉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43
〈표 Ⅲ- 8〉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45

〈표 Ⅲ- 9〉 화폐 발행·환수 및 발행잔액	48
〈표 Ⅲ-10〉 화폐 제조 규모	48
〈표 Ⅲ-11〉 일중 결제유동성 공급 규모	55
〈표 Ⅲ-12〉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자 현황	56
〈표 Ⅲ-13〉 2017년 중 동전적립서비스 이용 실적	57
〈표 Ⅲ-14〉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59
〈표 Ⅲ-15〉 외화자산 구성 내역	61
〈표 Ⅲ-16〉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63
〈표 Ⅲ-17〉 역대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63
〈표 Ⅲ-18〉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64
〈표 Ⅲ-19〉 중앙은행 업무연수 개최 실적	65
〈표 Ⅲ-20〉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65
〈표 Ⅲ-21〉 IMF에 대한 융자 현황	65
〈표 Ⅲ-22〉 국고금 수납 및 지급	74
〈표 Ⅲ-23〉 국고대리점 현황 및 수납금액	75
〈표 Ⅲ-24〉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75
〈표 Ⅲ-25〉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76
〈표 Ⅲ-26〉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잔 및 누계액	76
〈표 Ⅲ-27〉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76
〈표 Ⅲ-28〉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77
〈표 Ⅲ-29〉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의 주요 내용	77
〈표 Ⅲ-30〉 한국은행의 기금관리 주요 내용	78
〈표 Ⅲ-31〉 기금 조달(운용) 현황	78
〈표 Ⅲ-32〉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80
〈표 Ⅲ-33〉 한국은행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운영 현황	81
〈표 Ⅲ-34〉 화폐박물관 관람자 수	81
〈표 Ⅲ-35〉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	82
〈표 Ⅲ-36〉 한국은행 여론조사 결과	84
〈표 Ⅲ-37〉 현장 경제교육 실적	85
〈표 Ⅲ-38〉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가입자 수	86
〈표 Ⅲ-39〉 방송대학TV(OUN) 방영 내용	87

〈표 IV- 1〉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	95
〈표 IV- 2〉 한국은행 여성 관리자 인원	96
〈표 IV- 3〉 대차대조표	101
〈표 IV- 4〉 손익계산서	103
〈표 IV- 5〉 자본변동표	105
〈표 IV-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06

〈차례〉 그림

〈그림 1- 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3
〈그림 1-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4
〈그림 1-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5
〈그림 1- 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7
〈그림 1- 5〉 조직구성	9
〈그림 2- 1〉 국제유가	13
〈그림 2- 2〉 주요 선진국 주가 및 신흥국 MSCI 지수	22
〈그림 2- 3〉 주요 환율	23
〈그림 2- 4〉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	23
〈그림 2- 5〉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	23
〈그림 2- 6〉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24
〈그림 2- 7〉 원/달러 및 원/엔 환율	26
〈그림 2- 8〉 원/달러 환율 변동폭	26
〈그림 2- 9〉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27
〈그림 3- 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32
〈그림 3- 2〉 기준금리	33
〈그림 3-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35
〈그림 3- 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활용 비중	37
〈그림 3- 5〉 금융통화위원 기자간담회	39
〈그림 3- 6〉 금융통화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방문	40
〈그림 3- 7〉 캐나다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서명식	47
〈그림 3- 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2차분)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	49
〈그림 3- 9〉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50
〈그림 3-10〉 위조지폐 발견장수	50
〈그림 3-11〉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51
〈그림 3-12〉 화폐 폐기규모	51
〈그림 3-1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도안	53
〈그림 3-14〉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규모	54
〈그림 3-15〉 2017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68
〈그림 3-16〉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71

〈그림 Ⅲ-17〉 2017 IARIW-BOK 특별 컨퍼런스	72
〈그림 Ⅲ-18〉 2017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	73
〈그림 Ⅲ-19〉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자 시상	80
〈그림 Ⅲ-20〉 터키중앙은행 소장 미술전 및 터키화페 특별전	81
〈그림 Ⅲ-21〉 한국은행 임직원 사회봉사 활동	82
〈그림 Ⅲ-22〉 한국은행-서울대학교 MOU 체결	83
〈그림 Ⅲ-23〉 방송대학TV 스튜디오 공개 강연	87
〈그림 Ⅲ-24〉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입사원 재무설계」	87
〈그림 Ⅲ-25〉 「어서 와, 경제교육은 처음이지?」	87
〈그림 Ⅳ- 1〉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구조	92
〈그림 Ⅳ-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93
〈그림 Ⅳ- 3〉 2018년도 신입직원 입학식	95
〈그림 Ⅳ- 4〉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96
〈그림 Ⅳ- 5〉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98

〈차례〉 참고

〈참고 Ⅲ- 1〉 캐나다 및 스위스와의 신규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의의	47
〈참고 Ⅲ-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발행	53
〈참고 Ⅲ- 3〉 2017년 한국은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4
〈참고 Ⅲ- 4〉 경제교육채널 다변화	87

I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 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중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그림 1-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1950년 6월 5일)



자료: 한국은행

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행이 담당했던 은행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

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림 1-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2017년 8월 31일)



자료: 한국은행

2. 조직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5인의 임명직 위원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의 임명직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추천기관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원 상임²⁾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인 한국은행 부총재(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³⁾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림 1-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2017년 12월 31일 현재)



이 주 열
(한국은행 총재, 2014년 4월 1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부총재



함 준 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2014년 5월 13일~)

〈주요경력〉
UC 산타바바라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 일 형
(한국은행 총재 추천, 2016년 4월 21일~)

〈주요경력〉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제협력대사 겸 G20 세르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조 동 철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2016년 4월 21일~)

〈주요경력〉
텍사스A&M 경제학과 교수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 승 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2016년 4월 21일~)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 인 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2016년 4월 21일~)

〈주요경력〉
KDI 연구위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윤 면 식
(한국은행 부총재, 2017년 8월 21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자료: 한국은행

1)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다.

2)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 시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래 비상근이던 임명직 위원의 근무형태를 전원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3) 단 총재, 부총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권 발행, 여수신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금융기관 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 한국은행의 예·결산, 조직 및 기구, 직원의 보수 등 경영 관련 기본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17년 중 정기회의 24회, 임시회의 2회 등 본회의를 26회 개최하였다. 또한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 주요 현안 토의 및 본회의 상정안건 사전심의 등을 위해 위원협의회를 73회 열었으며,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15회 개최하였다.

〈표 1-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회)

연도	본회의	정기		위원 협의회	심의 위원회	계
		정기	임시			
2015	26	24	2	94	13	133
2016	27	24	3	89	15	131
2017	26	24	2	73 ¹⁾	15	114

주: 1)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횟수 축소 등으로 예년보다 감소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기회의 개최일자를 매년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데, 기존 연 12회였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통화정책 결정의 적정 시계를 확보하고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연 8회로 조정하고 4회는 금융안정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밖의 정기회의에서는 여수신정책, 금융기관 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과 한국은행의 예·결산, 조직 및 기구 등 경영 관련 기본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이 중 통화신용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은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통화정책방향 결정 내용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나. 집행간부 및 감사

한국은행은 집행간부로서 총재, 부총재 및 부총재보 5인을 두고 있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절차⁴⁾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며,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한국은행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

4) 국회 인사청문절차는 제9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동 법 시행(2012년 4월 22일) 후 최초로 임명된 이주열 총재부터 적용되었다.

을 행사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도 지닌다. 현 이주열 총재는 2014년 4월 1일 임명되었다.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총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2017년 말 현재 한국은행은 본부에 17개 부서(13국 1실 3원)와 9개 국소속실, 1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18개 부와 143개 팀(6개 연구실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과 지방에 16개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7개 기획조사부와 54개 팀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직원수는 2,373명⁵⁾이다.

〈그림 1-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2017년 12월 31일 현재)



총재
이주열
(2014년
4월 1일~)



부총재
윤면식
(2017년
8월 21일~)



부총재보
김민호
(2015년
1월 16일~)



부총재보
임형준
(2016년
5월 9일~)



부총재보
허진호
(2016년
7월 16일~)



부총재보
전승철
(2016년
7월 16일~)



부총재보
신호순
(2017년
9월 26일~)



감사
하성
(2015년
6월 13일~)

자료: 한국은행

5)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부총재 포함), 집행간부 및 감사 등 1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각 부서의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은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운영 리스크 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부서 간 업무 조정,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업무활동 조정 및 종합,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관리, 법규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국은 대내외 의견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통합 업무, 화폐박물관 운영 등 홍보활동, 정보자료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 대국민 경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산정보국

전산정보국은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등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은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와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은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국

조사국은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산업 동향 분석 및 산업정책 관련 조사연구, 고용관련 분석 및 전망,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조사연구, 계량모형 개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국은 국민소득, 통화금융, 국제수지, 물가,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경제심리지표 등 경제통계의 편제, 분석 및 개발과 함께 통계품질평가, ECOS(경제통계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상황 분석·종합평가, 시스템리스크 측정·분석 및 모형 개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및 파급경로 분석, 은행 및 비은행 관련 조사연구, 금융제도 관련 조사연구,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분석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입안, 정책수단 기획 및 운용, 통화신용정책 여건 및 효과 분석, 통화신용정책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시장국

금융시장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통화·금리 분석 및 전망, 금융시장 및 기업금융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및 감시,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사연구, 전자금융 관련 기획 및 조사, 금융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여수신 및 국고, 증권, 기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발권국

발권국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관리, 화폐 및 발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발권업무 기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국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기획·조사·분석, 외환시장 및 환율 관련 업무, 보유외환 및 외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외환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외환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국제금융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 및 금융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외자운용원

외자운용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 기획, 국

외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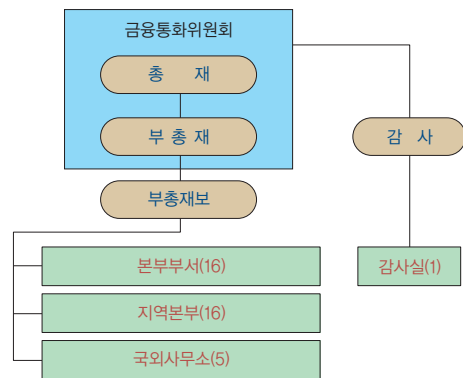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5〉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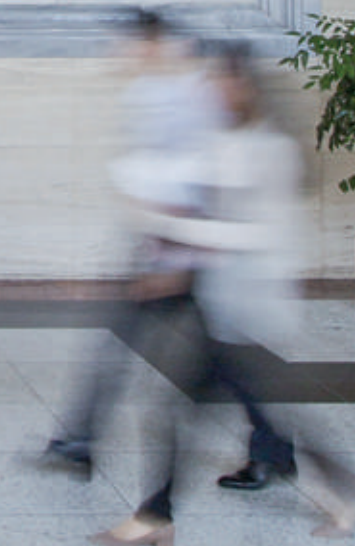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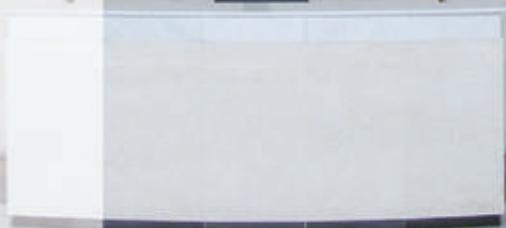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물 가 안정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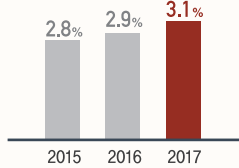
경제동향



2017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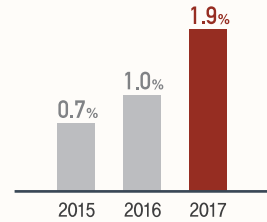
- 성장

경제성장률
(실질 기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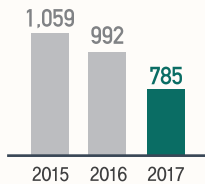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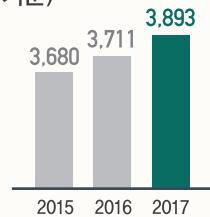
- 경상수지

785 억 달러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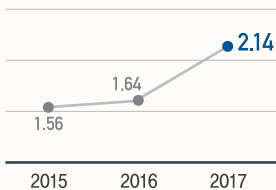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 (연말 기준)

3,893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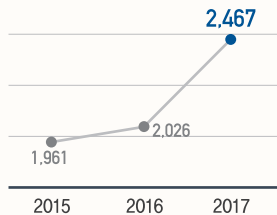
- 금리 (연말 기준)

국고채(3년)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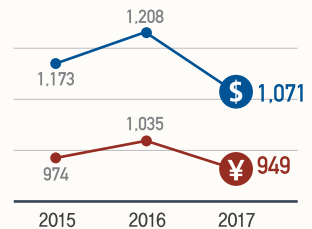
- 주가 (연말 기준)

KOSPI
2,467



- 환율 (연말 기준)

\$1,071 원/\$
¥ 949 원/100¥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

2017년 중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강화되었다. 선진국은 미국과 유로지역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일본도 투자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신흥국은 중국과 아세안 5개국이 소비와 수출의 호조로 성장세가 강화되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표 II-1〉 세계경제 성장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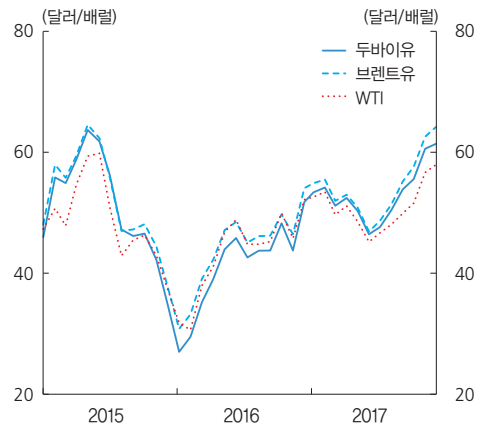
	2015	2016	2017e
세계경제 성장률	3.4	3.2	3.7
선진국	2.2	1.7	2.3
미국	2.9	1.5	2.3
유로지역	2.1	1.8	2.4
일본	1.4	0.9	1.8
신흥국	4.3	4.4	4.7
중국	6.9	6.7	6.9
브라질	-3.5	-3.5	1.1
러시아	-2.5	-0.2	1.8
인도 ²⁾	8.0	7.1	6.7
아세안 5개국 ³⁾	4.9	4.9	5.3

주: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회계연도 기준(2016년은 2016년 4월~2017년 3월 성장률)
 3)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자료: IMF, 각국 발표치

국제유가 배럴당 60달러대로 상승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중 세일오일 생산 증가로 배럴당 40달러대 초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글로벌 수요 증가, 감산합의 재연장⁶⁾, 중동지역의 정정불안⁷⁾ 등으로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II-1〉 국제유가 (월평균)



자료: Bloomberg

세계교역 신장률 큰 폭 확대

2017년 세계교역(물량 기준) 신장률은 글로벌 투자 회복세 강화와 중국 및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비해 2016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6) 주요 산유국(OPEC 14개국, 비OPEC 10개국)은 2017년 1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감산합의 종료일을 2018년 3월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7)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투표(2017년 9월 25일)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갈등 심화, 미 정부에 의한 「이란의 핵협정 의무 미준수」 선언(2017년 10월 13일) 등으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고조되었다.

〈표 II-2〉 세계교역 신장률

	2015	2016	2017e
세계 교역 신장률 ¹⁾	2.8	2.5	4.7
선진국 ²⁾	3.7	2.1	3.4
(미국) ²⁾	6.2	0.7	4.1
(유로지역) ²⁾	3.7	2.7	2.9
(일본) ²⁾	0.2	-0.1	3.1
신흥국 ²⁾	-1.1	0.5	6.5
(중국) ²⁾³⁾	-1.8	3.1	9.5

주: 1) IMF 기준(상품 및 서비스 교역)
 2) 상품수입물량 증감률
 3) 2017년은 월별(전년동기대비) 교역 신장률 평균
 자료: IMF, CPB, CEIC

나. 국내경제

(1) 경제성장

국내경제 성장세 확대

2017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2016년(2.9%)보다 높은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II-3〉 경제성장률¹⁾
(전기대비)

	2016		2017p					
	연간	연간	I	II	III	IV		
GDP	2.9	3.1	1.0 (2.9)	0.6 (2.8)	1.4 (3.8)	-0.2 (2.8)		
최종소비	3.0	2.8	0.5 (2.2)	1.0 (2.5)	1.0 (3.0)	0.9 (3.5)		
고정투자	5.6	8.6	3.6 (11.0)	1.8 (10.0)	0.9 (9.2)	-1.2 (5.0)		
재고증감 ²⁾	0.0	0.4	0.3 (0.4)	0.2 (0.4)	-0.7 (0.0)	0.8 (0.7)		
수출	2.6	1.9	2.1 (3.7)	-2.7 (0.3)	5.6 (4.4)	-5.3 (-0.6)		
수입	4.7	7.0	4.9 (10.1)	-1.0 (6.6)	3.2 (7.4)	-2.9 (4.1)		
국민총소득	4.2	3.1	2.3 (2.3)	-0.6 (1.8)	2.4 (5.0)	-1.2 (3.0)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p)
 자료: 한국은행

수요부문별로 보면 최종소비는 정부소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민간 소비는 물가오름세 확대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의 큰 폭 개선, 일자리 추경을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2.6%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표 II-4〉 소비동향¹⁾
(전기대비)

	2016		2017p			
	연간	연간	I	II	III	IV
최종소비	3.0	2.8	0.5 (2.2)	1.0 (2.5)	1.0 (3.0)	0.9 (3.5)
(민간)	2.5	2.6	0.5 (2.1)	1.0 (2.4)	0.8 (2.6)	1.0 (3.4)
(정부)	4.5	3.4	0.6 (2.4)	1.2 (2.8)	1.9 (4.3)	0.5 (4.1)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증가하여 전년대비 8.6% 늘어났다. 건설투자는 연말로 갈수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6%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IT부문 투자가 크게 늘면서 14.6% 증가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주요 IT기업의 R&D 투자를 중심으로 3.0% 증가하였다.

〈표 II-5〉

고정투자동향¹⁾
(전기대비)

(%)

	2016		2017p				
	연간		I	II	III	IV	
고정투자	5.6	8.6	3.6 (11.0)	1.8 (10.0)	0.9 (9.2)	-1.2 (5.0)	
건설	10.3	7.6	4.2 (11.3)	0.9 (8.5)	1.1 (8.0)	-2.3 (3.8)	
(건설물)	16.2	12.1	4.5 (16.7)	2.4 (13.8)	1.9 (11.9)	-1.6 (7.5)	
(토목)	-1.8	-3.5	3.5 (-1.5)	-3.0 (-3.6)	-1.2 (-3.3)	-4.2 (-4.8)	
설비	-1.0	14.6	4.5 (16.1)	4.3 (17.9)	0.2 (16.3)	-0.7 (8.6)	
(기계류)	-0.8	23.0	7.1 (28.9)	3.9 (29.3)	2.4 (23.4)	-1.2 (12.5)	
(운송장비)	-1.5	-3.2	-1.7 (-8.0)	5.3 (-2.1)	-5.5 (-1.3)	0.8 (-1.4)	
지식재산 생산물	3.5	3.0	0.3 (3.2)	0.5 (2.2)	1.5 (2.9)	1.1 (3.5)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반도체가 IT기기 고사양화, 데이터센터 확충 등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재화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석유제품·화학품 및 기계류 수출도 각각 글로벌 수급여건 개선 및 신증설 설비 가동, 신흥국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 수출은 사드(THAAD)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7.0% 늘어났다. 설비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자본재가 수입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민간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소비재 수입도 호조를 보였다.

제조업 성장세 확대 및 서비스업 소폭 둔화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업도 호조가 이어진 반면 서비스업 성장세는 소폭 둔화되었다.

〈표 II-6〉

경제활동별 성장률¹⁾
(전기대비)

(%)

	2016		2017p				
	연간		I	II	III	IV	
농림어업	-2.8	[2.1]	0.3 [2.2]	3.9 -0.3	-1.8	0.2	
광업	1.8	[0.2]	-4.1 [0.2]	-0.1 -2.1	-2.9	-1.6	
제조업	2.4	[29.5]	4.4 [30.4]	1.7 0.1	2.7	-1.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7	[3.3]	3.1 [3.0]	0.3 3.4	1.7	0.4	
건설업	10.1	[5.7]	7.1 [5.9]	4.8 -1.6	1.0	-1.6	
서비스업	2.5	[59.2]	2.1 [58.3]	0.4 0.7	1.0	0.3	
국내총생산	2.9		3.1	1.0 0.6	1.4	-0.2	

주: 1)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2016년 (2.4%)보다 높아진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고 정밀기기 및 기계 및 장비도 반도체 설비투자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 생산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속 및 자동차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표 II-7〉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¹⁾
(전기대비)

(%)

	2016		2017p				
	연간		I	II	III	IV	
제조업	2.4	4.4	1.7 -0.1	2.7	-1.7		
음식료품 및 담배	2.7	1.6	0.2 0.5	1.8	-1.1		
섬유 및 가죽제품	-1.0	3.0	7.8 -5.6	0.9	-0.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	1.3	1.2	0.9 -2.1	0.6	-0.5		
석탄 및 석유제품	14.0	6.1	2.9 2.2	4.0	-0.2		
화학제품	10.2	3.4	-1.6 0.7	5.5	-1.7		
비금속광물제품	5.2	1.7	0.4 -5.3	3.4	-2.9		
1차 금속제품	2.0	2.4	1.4 -1.1	2.5	-0.1		
금속제품	-1.8	-2.1	2.4 -3.7	-0.4	-2.5		
기계 및 장비	-3.8	14.3	6.7 4.5	-2.5	-2.9		
전기 및 전자기기	5.3	7.4	-0.2 1.8	7.2	0.7		
정밀기기	9.5	23.1	6.8 6.9	3.3	-0.2		
운송장비	-5.5	-1.7	3.0 -1.4	-1.3	-7.3		
기타	-1.5	3.4	3.6 -1.8	-8.5	3.4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 생산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7.1% 증가하였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력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전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농림어업은 수산양식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2016년(2.5%)보다 소폭 낮아진 2.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금융·보험업은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큰 폭 둔화되었다.

(표 II-8)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전기대비)

	2016		2017p				
	연간	I	II	III	IV	(%)	
서비스업	2.5	2.1	0.4	0.7	1.0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	0.7	-1.3	0.6	1.2	0.4	
운수 및 보관업	2.3	2.3	0.1	0.3	2.1	0.2	
금융 및 보험업	2.6	3.7	0.7	2.1	0.3	-0.4	
부동산 및 임대업	0.8	0.9	1.9	-0.7	0.6	-0.2	
정보통신업	3.1	2.5	0.9	-0.5	2.4	1.5	
사업서비스	2.4	2.0	0.8	1.1	0.4	0.5	
공공행정 및 국방	2.4	2.6	0.9	0.7	0.5	0.6	
교육서비스	0.1	0.5	0.0	0.4	0.3	0.0	
보건 및 사회복지	7.7	7.3	0.8	2.2	3.0	1.6	
문화및기타서비스	2.1	0.4	-0.7	2.0	0.4	-1.8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및 임금

취업자수 증가폭 소폭 확대

취업자수는 건설경기 호조,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32만 명 늘면서, 2016년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1만 8천 명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⁸⁾ 등으로 음식숙박업에서 줄었으나, 보건·사회복지 및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건설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다.

고용률이 여성 및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⁹⁾ 등에 힘입어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2016년과 같았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9.8%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이는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 인구¹⁰⁾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8)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중 1,724만 명에서 2017년 중 1,334만 명으로 23% 감소하였다.

9) 2017년 중 여성 및 55세 이상 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5% 포인트(2016년 52.2% → 2017년 52.7%) 및 0.6% 포인트(2016년 50.1% → 2017년 50.7%) 상승하였다.

10) 20대 후반(25~29세) 인구는 2017년 중 9만 5천 명 증가하여 2016년(+1만 3천 명)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II-9〉

고용 지표

(만 명, %)

	2016		2017			
	연간	I	II	III	IV	
경제활동인구	2,742	2,775	2,726	2,799	2,796	2,778
경제활동인구증가율 ¹⁾	1.0	1.2	1.4	1.5	0.9	1.0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2.2	63.8	63.6	63.1
취업자수	2,641	2,672	2,610	2,692	2,700	2,688
취업자수 증가율 ¹⁾	0.9	1.2	1.4	1.4	1.0	1.0
취업자수 증감 ¹⁾	23.1	31.6	35.3	36.7	27.9	26.5
〈 산 업 별 〉						
농림어업	-6.5	0.6	-2.5	0.1	2.1	2.8
광공업	-1.5	-1.4	-11.6	-1.7	3.5	4.3
(제조업)	-2.1	-1.8	-12.0	-2.1	3.0	4.1
건설업	1.5	11.9	13.6	16.3	8.4	9.2
서비스업	30.0	20.8	36.0	22.5	14.4	10.5
(도소매)	-6.3	4.1	7.1	4.6	2.0	2.8
(음식·숙박)	9.6	-0.3	5.5	0.4	-3.1	-4.0
(보건·사회복지)	8.0	6.1	7.8	5.7	5.3	5.4
(공공행정)	5.5	5.5	4.0	2.6	6.8	8.4
(금융·보험)	0.4	-0.9	-0.1	-1.4	-1.8	-0.4
〈 종사상지위별 〉						
임금근로자	26.7	26.5	19.1	31.2	29.1	26.5
상용근로자	34.6	36.6	31.7	34.7	41.7	38.2
임시근로자	1.0	-13.2	-15.2	-12.6	-14.5	-10.4
일용근로자	-8.8	3.1	2.7	9.2	1.9	-1.3
비임금근로자	-3.6	5.1	16.1	5.5	-1.2	0.0
실업자수	100.9	102.3	116.2	107.4	96.3	89.2
실업률(계절조정전)	3.7	3.7	4.3	3.8	3.4	3.2
(15~29세)	9.8	9.8	10.7	10.3	9.3	9.0
실업률(계절조정후)	-	-	3.7	3.7	3.7	3.7
고용률(계절조정전)	60.6	60.8	59.6	61.3	61.4	61.0
고용률(계절조정후)	-	-	60.9	60.8	60.8	60.9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임금 상승폭 축소

명목임금은 2.7% 상승하며, 2016년(3.8%)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2016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일부 대형 제조업체에서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 등의 영향으로 특별급여가 큰 폭

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근로시간 감소로 시간당 명목임금이 2016년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으나,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표 II-10〉

임금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6		2017			
	연간	I	II	III	IV	
명목임금 ¹⁾	3.8	2.7	2.5	3.5	3.2	1.8
(실질임금) ²⁾	2.8	0.8	0.5	1.5	0.8	0.3
〈내역별〉						
상용근로자	3.8	2.3	2.1	3.1	2.7	1.4
정액급여	3.3	3.4	3.0	3.5	3.3	3.9
초과급여	3.8	0.7	0.7	1.7	1.9	-1.4
특별급여	6.7	-2.7	-1.0	0.6	0.5	-10.3
임시·일용근로자	3.1	4.8	5.6	4.6	5.3	3.9
시간당 명목임금 ³⁾	4.7	4.7	0.8	6.1	1.4	10.6
노동생산성 ⁴⁾	2.5	3.7	-0.3	3.7	1.1	10.7
단위노동비용 ⁵⁾	2.2	0.9	1.2	2.2	0.4	0.0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부문의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3) 물가

소비자물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연평균 기준) 1.9% 상승하며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였다. 반면 수요측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¹¹⁾

11) 통계청은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로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변동성, 예측력, 국제비교 용이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두 지수 중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를 2017년 1월부터 주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7년 1월)』의 8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은 국내경기의 회복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1% 대 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이 기상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공업제품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승 전환하였고, 전기·수도·가스요금은 2016년 말 전기료 인하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1.4% 하락하였다.

서비스요금은 2016년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이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집세 및 공공서비스요금 상승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표 II-11〉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연간	I	II	III	IV
소 비 자 물 가	1.0	1.9	2.1	1.9	2.3	1.5
농 축 수 산 물	3.8	5.5	6.1	6.1	8.4	1.4
농 산 물	3.8	4.6	4.7	3.6	10.2	-0.1
축 산 물	4.4	6.5	8.6	9.6	6.7	1.3
수 산 물	2.9	6.8	6.6	7.4	5.9	7.1
공 업 제 품	-0.5	1.4	2.1	1.3	0.9	1.5
석 유 류	-8.1	7.7	12.0	7.7	3.4	8.0
전 기 · 수 도 · 가 스	-9.2	-1.4	-6.9	-2.4	8.0	-3.3
서 비 스	2.3	2.0	2.1	2.0	1.9	1.9
집 세	1.9	1.6	1.7	1.8	1.6	1.4
공 공 서 비 스	1.5	1.0	1.0	1.0	1.0	0.8
개 인 서 비 스	2.7	2.5	2.7	2.5	2.3	2.5
외 식	2.5	2.4	2.3	2.3	2.4	2.6
식료품·에너지 제외 ¹⁾	1.9	1.5	1.7	1.5	1.4	1.5
농산물·석유류 제외 ²⁾	1.6	1.5	1.5	1.4	1.7	1.3

주: 1)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류 이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 농산물 및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제외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확대 및 전세가격 오름세 둔화

주택매매가격은 연중 1.5% 상승하여 2016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수도권이 높은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 비수도권은 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부진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며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주택전세·월세가격은 입주물량의 큰 폭 증가 등으로 2016년에 비해 약세를 나타냈다.

〈표 II-12〉 부동산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2016	2017				
		연간	I	II	III	IV
주택매매가격	0.7	1.5	0.1	0.5	0.6	0.4
〈수 도 권〉	1.3	2.4	0.1	0.7	0.8	0.7
〈비 수도 권〉	0.2	0.7	0.1	0.2	0.3	0.1
주택전세가격	1.3	0.6	0.1	0.2	0.2	0.1
〈수 도 권〉	2.0	1.4	0.2	0.5	0.5	0.2
〈비 수도 권〉	0.7	-0.1	0.1	0.0	-0.1	-0.1
주택월세가격	-0.2	-0.3	0.0	-0.1	-0.1	-0.1
〈수 도 권〉	0.1	0.1	0.0	0.1	0.1	0.0
〈비 수도 권〉	-0.4	-0.7	-0.1	-0.2	-0.2	-0.2
토 지 가 격	2.7	3.9	0.7	1.1	1.1	0.9

자료: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4)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를 지속하였으나 흑자규모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상품수지는 세계 수입수요 증가 및 주력 품목의 수출여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면서 1,199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표 II-13〉 경상수지 요약표

				증감액
	2015	2016(A)	2017p(B)	(B-A)
경 상 수 지	1,059.4	992.4	784.6	-207.8
상 품 수 지	1,222.7	1,189.0	1,198.9	9.9
수 출 ¹⁾	5,428.8	5,119.5	5,773.8	654.3
수 입 ¹⁾	4,206.1	3,930.5	4,574.9	644.4
서 비 스 수 지	-149.2	-177.4	-344.7	-167.3
본원소득수지	35.7	38.5	1.2	-37.3
이전소득수지	-49.9	-57.7	-70.8	-13.1

주: 1) 국제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

수출 증가

수출(통관 기준)은 5,7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다. 반도체, OLED 등 IT제품 수출이 글로벌 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비IT제품 수출은 선박이 고가의 해양플랜트 인도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고 석유제품·화공품·철강 등도 물량과 단가 모두 개선되면서 호조를 보였다. 다만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산 확대 및 경쟁심화로, 자동차는 부품수출 부진으로 각각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표 II-14〉 주요 품목별 수출

	2016		2017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 T 제 품	-6.0	<32.8>	21.6	<34.4>
반 도 체	-1.0	<12.7>	60.2	<17.5>
무 선 통 신 기 기	-14.3	<5.3>	-22.7	<3.5>
디 스플 예 이 패 널	-15.5	<5.1>	9.0	<4.8>
비 I T 제 품	-5.9	<67.2>	13.0	<65.6>
자 동 차	-8.8	<13.1>	-0.8	<11.2>
석 유 제 품	-17.2	<5.4>	32.2	<6.2>
철 강 · 금 속 제 품	-3.5	<8.1>	17.4	<8.2>
선 박	-13.7	<6.8>	23.6	<7.2>
총 수 출 ¹⁾	-5.9	[4,954]	15.8	[5,737]

주: 1)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소유권 변동률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수지 요약표' 상의 수출과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입 증가

수입(통관 기준)은 4,7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원유도입단가 상승에 따라 원유·석유제품·가스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자본재도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였다. 소비재 수입은 직접소비재 및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표 II-15〉 주요 품목별 수입

	2016		2017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 자 재	-12.8	<47.0>	22.0	<48.7>
자 본 재	-2.0	<36.4>	16.2	<35.9>
전 기 · 전 자 기 기	-3.0	<20.9>	12.9	<20.0>
기 계 류 · 정 밀 기 기	-2.6	<11.8>	31.9	<13.2>
(반도체 제조장비)	7.5	<2.2>	120.8	<4.1>
소 비 재	1.0	<16.6>	9.2	<15.4>
총 수 입 ¹⁾	-6.9	[4,062]	17.8	[4,785]

주: 1)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소유권 변동률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수지 요약표' 상의 수입과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서비스수지는 2016년에 비해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여행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운송수지는 국내 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각각 172억 달러 및 53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표 II-16〉 서비스수지

		(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p
서비스수지		-36.8	-149.2	-177.4	-344.7
가공서비스		-56.4	-61.0	-57.6	-67.6
운송		61.9	46.3	-15.5	-53.0
여행		-53.6	-100.6	-99.1	-171.7
건설		152.9	96.4	95.6	77.1

자료: 한국은행

본원소득수지는 국내기업의 배당성향 강화,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국외배당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흑자규모가 1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 전소득수지는 7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II-17〉 본원 및 이전소득수지

		(억 달러)			
		2014	2015	2016	2017p
본원소득수지		41.5	35.7	38.5	1.2
급료 및 임금		-4.5	-0.7	-5.7	-8.6
투자소득		46.0	36.4	44.2	9.8
이전소득수지		-49.8	-49.9	-57.7	-70.8

자료: 한국은행

(5) 지역경제동향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반도체, 석유화학·정제, 철강 등을 중심으로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및 대경권에서는 조선,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모든 권역에서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이 둔화되면서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수요동향¹²⁾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동남권과 호남권에서 소폭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호조 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016년보다 상승하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기착공사가 진행되면서 상반기 중 충청권, 호남권 등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신규착공이 줄어들면서 건축착공면적은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수출은 2016년 수출 부진의 기저효과, 글로벌 무역 회복 등에 힘입어 모든 권역에서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주력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호남권과 대경권에서는 주력산업 부진, 서비스업 성장세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충청권, 대경권, 강원

12) 지역별 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권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수도권, 동남권 및 호남권에서는 소폭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CPI)는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2016년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호남권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 등으로, 강원권의 경우 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여타 권역은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어 권역별로 차별화되었다. 주택전세가격은 호남권과 강원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여타 권역에서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하였다.

〈표 II-18〉

권역별¹⁾ 주요 지표

(%)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²⁾	6.6	3.8	-3.1	-3.1	8.5	9.9	0.4	-0.1	-3.8	-4.2	8.0	15.3	3.6	5.7
서비스업생산지수 ²⁾	3.5	2.9	2.2	1.5	3.4	2.5	2.5	1.4	2.3	1.9	3.4	1.2	6.9	2.7
수요														
소매판매액지수 ²⁾	3.9	2.0	0.8	-0.4	3.1	1.7	1.6	-0.4	1.1	0.4	2.5	0.9	11.2	2.1
설비투자 BSI (기준치=100)	95	97	91	93	96	96	94	97	84	90	101	102	102	118
건축착공면적 ²⁾	-10.3	-9.1	8.4	-24.0	-20.2	-3.5	9.8	15.0	-11.7	-27.1	40.4	-16.8	17.9	-34.9
수출 ³⁾	-5.1	17.9	-8.0	13.3	-0.2	20.5	-9.1	7.0	-10.1	14.6	-11.8	7.4	6.5	20.4
고용														
취업자수 증가 ⁴⁾	12.5	19.9	1.8	2.5	3.7	4.9	1.7	-1.3	1.1	-0.5	0.9	4.0	1.6	1.9
실업률	4.1	4.2	3.6	3.7	3.0	2.8	2.7	2.9	3.6	3.4	2.8	2.6	2.2	1.9
고용률	61.0	61.3	58.4	58.7	61.2	61.4	60.4	60.0	60.9	60.7	58.2	61.0	69.3	70.9
경제활동참가율	63.6	64.0	60.6	61.0	63.2	63.2	62.0	61.7	63.2	62.8	59.9	62.6	70.8	72.3
물가														
CPI ⁵⁾	1.0	2.0	1.1	1.7	0.7	1.9	0.8	2.0	0.8	1.9	0.8	2.0	1.3	2.3
주택매매가격 ⁶⁾	1.3	2.4	1.1	0.2	-0.7	0.2	0.5	1.9	-1.7	0.0	1.3	2.4	4.6	1.7
주택전세가격 ⁶⁾	2.0	1.4	1.6	-1.0	0.6	-0.1	1.0	1.4	-1.3	-0.7	1.3	1.8	1.9	0.1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통관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4) 전년대비 증가(만 명) 5)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감정원 6)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2. 금융 · 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장기금리 움직임은 국가별로 상이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2017년 상반기 중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추진 동력 약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반등하였다. 유로지역의 경우 성장세 확대, ECB의 완화기조 약화¹³⁾로 연중 0.2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장기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횡보하였다.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 및 EMBI+ 가산금리는 중국의 견조한 성장세, 자원수출국의 경기부진 완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표 II-19〉 주요 국제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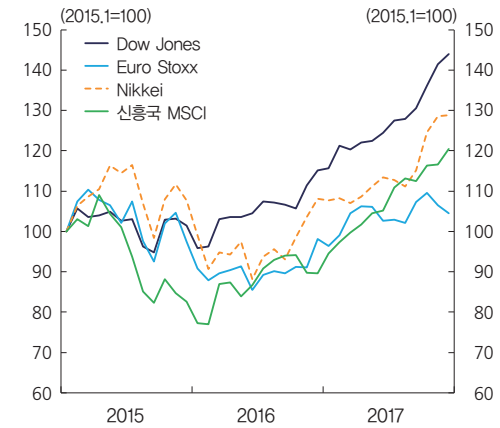
	(연%, bp)				
	2016	2017			
		3월	6월	9월	12월
장 기 금 리					
(미 국)	2.44	2.39	2.30	2.33	2.41
(유 로 지 역)	0.21	0.33	0.47	0.46	0.43
(일 본)	0.05	0.07	0.09	0.07	0.05
리 스 크 프 리 미 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¹⁾	231	231	213	205	183
(신흥국 CDS 프리미엄) ²⁾	242	214	202	185	120
(신흥국 가산금리) ³⁾	363	338	334	317	329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Markit이 15개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글로벌 주가, 선진국 · 신흥국 모두 상승

미국 주가지수는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2017년 중 큰 폭(25.1%) 상승하였으며 유로지역 및 일본의 주가지수도 각각 6.5% 및 19.1% 상승하였다. 신흥국 주가는 수출 호조, 자원수출국의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연중 34.3% 상승하였다.

〈그림 II-2〉 주요 선진국 주가 및 신흥국 MSCI 지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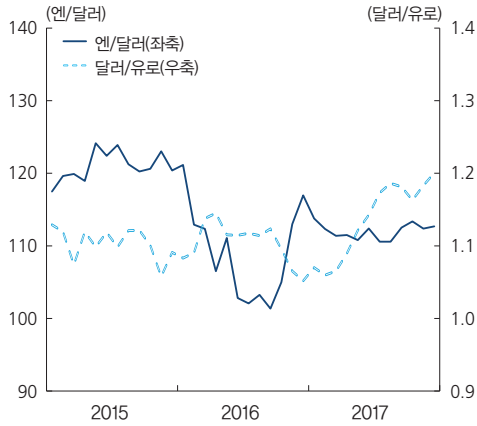
미 달러화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

달러화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완화 등으로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흐름¹⁴⁾을 나타내었다.

13) ECB는 2017년 10월 26일 개최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매월 600억 유로인 신규자산 매입규모를 2018년 1~9월 중 300억 유로로 축소하여 운용한다고 발표하였다.

14) 미 달러화는 2017년 중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각각 14.1% 및 3.7% 절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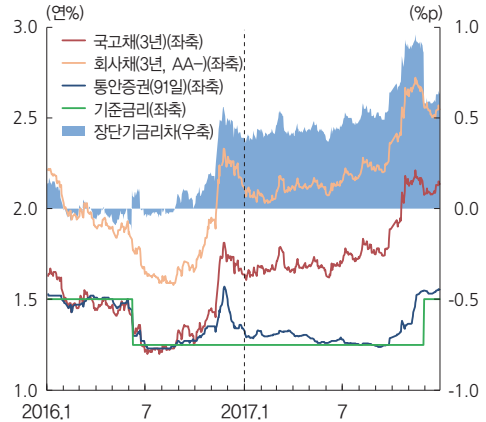
〈그림 II- 3〉 주요 환율



자료: Bloomberg

계 상승하였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 4〉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¹⁾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나. 국내금융시장

(1)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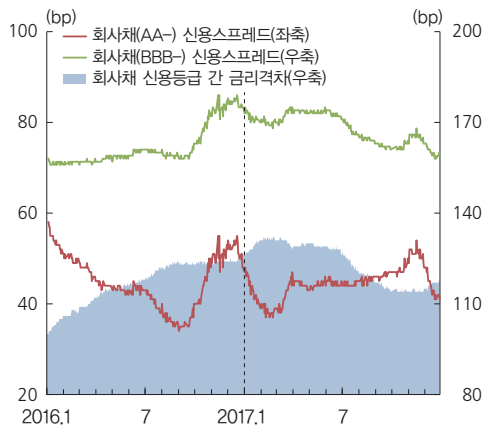
국내 장기금리 큰 폭 상승

국고채(3년) 금리는 6월 중순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부각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0월 들어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월 하순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채권 발행물량 조절, 기준금리 인상 효과 선반영 등으로 급등세가 진정된 데 이어,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점진적인 추가 인상 기대가 형성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장기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9월 하순부터 빠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및 금리 메리트 부각 등에 따라 축소되었다.

〈그림 II- 5〉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²⁾



주: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2) 회사채(3년, A-)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은행 여수신금리 상승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표 II-20) 은행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연%, %p)

	2016		2017			D-C
	12월 (C)	3월	6월	9월	12월 (D)	
여 수 신 금 리 (A)	3.44	3.48	3.44	3.46	3.62	+0.18
기업대출금리	3.54	3.53	3.45	3.48	3.64	+0.10
가계대출금리	3.29	3.43	3.41	3.41	3.61	+0.32
수 신 금 리 (B)	1.56	1.49	1.49	1.53	1.81	+0.25
여수신금리차(A-B)	1.88	1.99	1.95	1.93	1.81	-0.07

자료: 한국은행

(2) 자본시장

코스피 큰 폭 상승

코스피는 상반기 중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기업이익 증가 전망, 그리고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7월 말 이후 차익실현, 북한 리스크¹⁵⁾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10월 들어서는 북한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완화,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재차 상승하여 11월 3일 사상 최고치(2,558)를 기록하였다. 이후 차익실현 등으로 약세를 보여 연말 코스피는 2016년 말 대비 21.8% 상승

한 2,467로 마감하였다.

코스닥지수는 10월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초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연말 코스닥지수는 2016년 말 대비 26.4% 상승한 798을 기록하였다.

(그림 II-6)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수신 증가세 지속

은행 수신은 2016년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기예금 및 시장성 수신은 예금금리 상향 조정, 바젤Ⅲ 단기유동성 지표인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산정 기준 강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¹⁶⁾ 그러나 수시입출식예금 등 대기성 자금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

15) 북·미간 잇따른 강경 발언과 6차 핵실험(9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기인하였다.

16) LCR(현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동 비율 제고를 위해 정기예금,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매입을 확대하였다.

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비은행 부문에서는 MMF와 채권형 펀드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 기회비용 증가 및 채권평가손실 발생 우려 등으로 부진하면서 자산운용사 수신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신용협동기구 등 예금취급기관 수신은 금리 메리트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표 II-21〉 주요 금융기관 수신
(증감액 기준) (조 원)

	2016	2017				
		연중	I	II	III	IV
은행수신 ¹⁾	80.8	79.5	-7.2	35.9	35.0	15.8
요구불예금	23.7	14.3	-3.7	8.2	4.7	5.1
저축성예금	53.2	47.6	-1.5	16.1	25.3	7.7
수시입출식	36.5	19.7	-1.4	9.6	6.9	4.7
정기예금	19.8	31.8	3.3	6.0	19.1	3.4
시장성수신 ²⁾	3.9	17.7	-1.9	11.6	5.0	2.9
자산운용회사	47.6	27.9	17.0	7.3	7.7	-4.2
M M F	10.9	-7.0	13.9	-8.0	-3.3	-9.7
주식형펀드	-7.7	4.2	-4.5	-0.2	2.5	6.3
채권형펀드	18.7	-8.6	-1.1	2.9	-0.9	-9.6
신종펀드 ³⁾	29.6	45.3	11.2	14.4	10.0	9.7
상호저축은행	6.6	6.9	1.9	1.0	2.1	1.8
신용협동기구 ⁴⁾	35.3	44.6	15.6	12.9	9.1	7.0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 가계대출 둔화

금융권 기업대출은 2016년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경기회복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44조 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대기업대출

은 내부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대출상환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비은행 기업대출은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43조 3천억 원¹⁷⁾ 늘어나 2016년보다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대출 관리대책, 기 분양아파트 준공에 따른 중도금 상환, 신규분양 축소 등에 기인하였다.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도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비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도입되면서 신용협동기구와 보험기관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표 II-22〉 금융기관 대출
(증감액 기준) (조 원)

	2016	2017				
		연간	I	II	III	IV
은행대출	77.5	83.6	13.3	18.7	31.0	20.7
기업	23.9	40.4	12.2	6.7	16.0	5.4
대기업	-9.9	-3.7	1.6	-2.9	0.8	-3.1
중소기업	33.8	44.0	10.6	9.6	15.2	8.6
가계	53.7	43.3	1.1	12.0	15.0	15.2
비은행대출						
기업 ¹⁾	30.0	41.8	8.4	10.9	11.0	11.5
가계 ²⁾	78.2	57.0	15.2	14.9	13.3	13.6
신용협동기구	38.0	19.8	6.3	5.7	3.4	4.3
보험기관	9.6	6.3	0.8	1.4	1.4	2.8
기타금융중개회사	17.7	19.9	5.4	7.0	3.6	4.0

주: 1) 공공 및 기타대출 포함,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기준
 2)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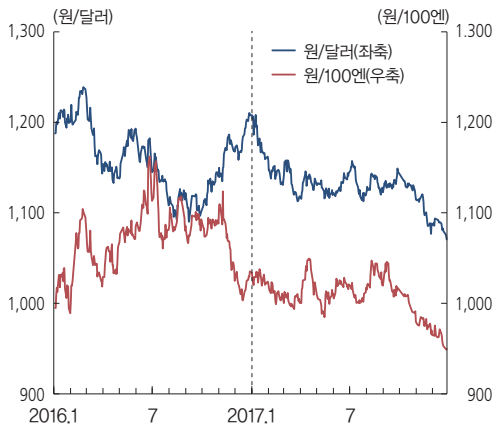
17)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은행의 정책모기지론(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취급분을 포함할 경우에는 약 58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4)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2016년 말 대비 하락

원/달러 환율은 연초 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수출 호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3월 말까지 상당 폭 하락하였다. 이후 북한 관련 리스크 전개 상황,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들어 북한 리스크 완화, 미 달러화 약세 지속,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말에는 연중 최저치인 1,070.5원을 기록하였다. 2017년 중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2016년 말 대비 12.8% 상승하였다.

〈그림 II- 7〉 원/달러 및 원/엔 환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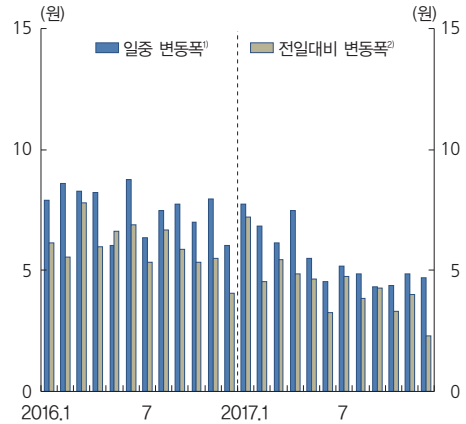


주: 1) 원/달러는 서울외환시장 종가, 원/100엔은 KEB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KEB하나은행

한편 원/엔 환율(100엔당)은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변화, 북한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지속하다가 10월 들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하였다. 2017년 말 원화의 엔화에 대한 가치는 100엔당 949.2원으로 2016년 말 대비 9.1%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연평균 각각 5.5원, 4.4원을 기록하여 2016년(각각 7.5원 및 6.0원)에 비해 축소되었다.

〈그림 II- 8〉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1) (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당일 종가 - 전일 종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외환스왑레이트 하락, 통화스왑금리 상승

외환스왑레이트¹⁸⁾(3개월물)는 외화자금수요 확대 등으로 2016년 말 대비 0.61% 포인트 하락한 -0.63%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¹⁹⁾(3년물)는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2016년 말 대비 0.37% 포인트 상승한 1.57%를 기록하였다.

(그림 II-9)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중개(주), 한국 톨렛프레본 외국환중개(주)

18)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 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19) 통화스왑(CRS, Currency Swap)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유사 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LIBOR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

III

업무현황



2017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 수행



물가안정목표 설정
(2016~2018년 중)



기준금리 인상
(11월, 0.25%p)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25조 원 규모)

- 금융안정 책무 수행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 개최



비상대응체제 가동 등
시장안정 도모
「긴급 금융경제상황 점검 회의」 등 개최
국고채 매입·통안증권 발행 조절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 수행
(통화스왑 다수 체결 등)

- 조직 및 인력의 경쟁력 강화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사연구 강화



대국민 소통 및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1. 중기전략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앙은행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3년 시계의 중기 전략을 2012년부터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동 전략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중기전략은 주요 업무 분야별로 9개의 전략목표와 34개의 전략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각 절에는 각 업무 분야별로 전략계획과 연계된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이 기술되어 있다.

〈표 III-1〉 2017년 중기전략 목표 및 계획

1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
최적 통화정책 결정 지원 및 정책효과 분석 고도화
정책수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금융경제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 구축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2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행
금융안정기능 수행체계 구축 및 적극 운영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조사연구 강화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3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의 충격대응능력 제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현안에 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4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및 정책기능 강화
5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통계 확충
경제 분석 및 예측의 정확성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새로운 국제 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과 정착
경제전망 및 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
대내외 연구교류 강화 및 정책공감대 형성 기능 강화
6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외화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투자전략 도모
외화자산 운용역량 강화
7 화폐의 원활한 공급 및 신뢰 제고
화폐수급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화폐관리체계 구축
화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위변조 방지장치 개선 및 위조지폐 유통방지 홍보 강화
화폐·발권제도 및 화폐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확대
8 대국민 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및 경제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국제회의체,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정책협력·교류 강화
9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 성숙도 제고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
직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보수·복지 제도의 합리적 정비
보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본점 건물 신·개축
지식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 강화
IT서비스 확충 및 고도화

자료: 한국은행

2.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체계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상하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편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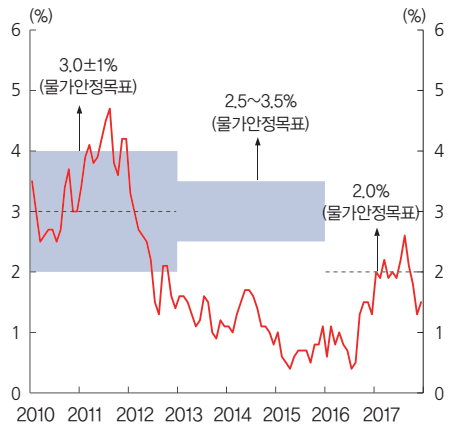
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17년 중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하면서 2013년 이후의 낮은 오름세에서 벗어나 대체로 물가안정 목표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연 4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pm 0.5\%$ 포인트 초과하여 벗어나는 경우에는 물가설명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와의 괴리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²⁰⁾ 2017년 중에도 총 4회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설명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의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 물가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다.

〈그림 III-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 이후에도 물가 목표를 $\pm 0.5\%$ 포인트 초과하여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마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17년 중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였다.²¹⁾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²²⁾ 아울러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하여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경기 개선흐름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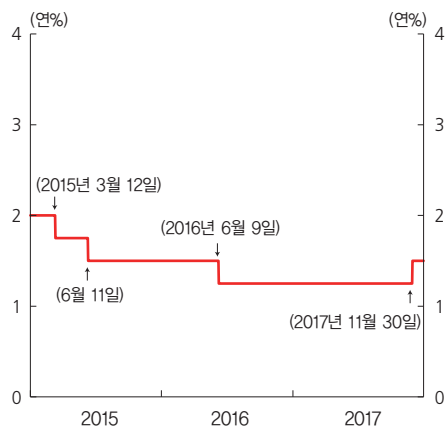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유지하였다. 이는 국내경제의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 개선세가 미흡한 데다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지속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물가 면에서도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보였으나 수요 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하반기 중에는 11월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연 1.50%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가 더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완화적인 수준을 지속하였다.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였으나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안정되었다. 이러한 완화적인 금융상황은 추경집행 등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 강화,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2015~16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금융불균형 누적 우려가 상존하였다.

〈그림 III- 2〉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2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2017년 중 총 8차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6차례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결정되었다. 소수의견은 2차례(10, 11월) 있었는데 10월에는 이일형 위원이 0.25% 포인트 인상 의견을, 11월에는 조동철 위원이 동결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여수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여수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에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17년 말 현재 17조 1,855억 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430억 원 감소하였다.

〈표 III-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¹⁾
(기말 기준)

	잔 액		증 감 액
	2016	2017	
금융중개지원대출	173,285	171,855	-1,430
계	173,285	171,855	-1,430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자료: 한국은행

예금은 2017년 말 현재 112조 4,803억 원으로 2016년 말 대비 21조 3,532억 원 줄어들었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금이 5조 1,651억 원, 외화예금이 16조 1,881억 원 감소하였다.

〈표 III-3〉 한국은행 예금
(기말 기준)

	잔 액		증 감 액
	2016	2017	
원 화 예 금	720,019	668,368	-51,651
금 융 기 관	648,953	615,940	-33,013
비 거 주 자 ¹⁾	71,066	52,428	-18,638
외 화 예 금	618,316	456,435	-161,881
계	1,338,335	1,124,803	-213,532

주: 1) IMF 등 외국기관의 원화예금
자료: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2016년 12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기본방향²³⁾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여 9월부터 시행하였다.

먼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비율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용을 상시

23)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계에서 동 대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화²⁴⁾하였다. 대기업 구조조정,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 미흡 등의 영향으로 경영, 고용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²⁵⁾을 재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실물 및 금융순환 과정에서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반적인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과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한시운용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9월부터 신규 지원을 종료²⁶⁾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6년 3월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한도 5조 원 운용을 상시화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25조 원으로 유지하였다.

한편 11월에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등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한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간을 2018년 11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

개지원대출의 한도유보분 중 50억 원과 포함본부 자체 자금 50억 원을 합한 총 1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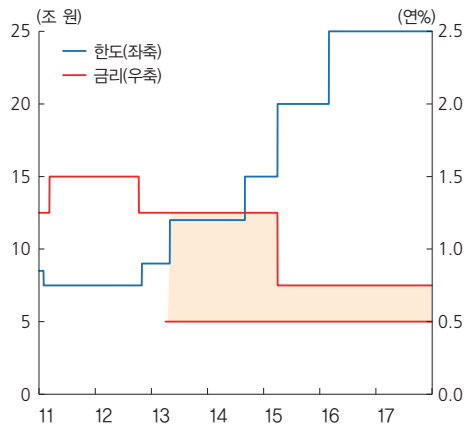
〈표 III- 4〉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내용

(조 원)

개편 이전		개편 이후		비고
프로그램명	금액	프로그램명	금액	
창업	5.0	신성장·일자리	6.0	- 한시증액 한도 1조 원 상시화
한시증액	1.0			
무역금융	1.5	무역금융 ²⁾	1.5	
한시증액	3.0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11.0	- 무역금융 한시증액한도 3조 원 전용 - 설비투자한도 8조 원(한시증액 한도 1조 원 포함) 전용
설비투자	7.0			
한시증액	1.0			
영세자영업자	0.5	영세자영업자	0.5	
지방중소기업 ³⁾	5.9	지방중소기업 ³⁾	5.9	
총한도 ³⁾	25.0	총한도 ³⁾	25.0	

주: 1) 잔액기준 지원한도 2) 특별지원한도 1조 원 포함
3) 한도유보분 0.1조 원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¹⁾



주: 1) 2015년 4월 1일 이후 0.50~0.75%
자료: 한국은행

24)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중 2017년 8월 31일로 운용기한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운용기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25) 운용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5조 9천억 원) 내에서 특별지원한도(1조 원)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였다.

26) 금융기관이 2017년 8월 31일까지 기 취급한 설비투자자금 및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자금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대출 및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인정 조치 연장

2017년 12월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²⁷⁾를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²⁸⁾ 취급과 관련하여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201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²⁹⁾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라.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아울러 미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개시장운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점검·보완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통화안정증권 발행수익률 단위를 유통시장 체계에 맞

춰 세분화하는 등 유동성조절수단의 시장친화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신축적인 유동성 조절

2017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201조 원으로 전년대비 1조 3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화폐발행이 큰 폭 증가하면서 기준공급이 감소³⁰⁾한 데다 수시입출금예금 증가세 지속 등으로 필요지준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 운용규모를 축소하였다. 다만 RP매각,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단기조절수단을 통한 유동성 조절규모는 확대하였다.

통화안정증권 운용규모(평잔 기준)는 연간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2016년 11월 말과 12월 초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실시한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 축소 조치의 영향이 2017년 1/4분기까지 이어지고 4/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부진이 더해짐에 따라 전년대비 상당 폭(6조 5천억 원) 감소³¹⁾하였다.

RP(순)매각규모(RP매각에서 RP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부진 등에

27) 동 조치는 2015년 3~5월 중 은행이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대규모로 보유하게 된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졌던 것이다.

28)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는 대출로서 2015년 3~5월 중 총 31조 7천억 원(32만 7천 건)이 공급되었다.

29)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에서 마련한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30) 민간의 화폐수요가 늘어나면 통상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인출하여 대응한다. 이 때 화폐발행액이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지준예치금은 감소하게 된다.

31) 이와 달리 말잔 기준으로 본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는 2016년 말 대비 소폭 증가(2조 5천억 원)한 170조 9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 말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대응하여 신속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6천억 원 및 4조 6천억 원 늘어났다. 특히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가 상당 폭 확대된 것은 매주 월요일 실시되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경쟁 입찰(2년물은 격주 수요일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할 경우 익일(매주 화요일) 실시되는 통화안정계정 입찰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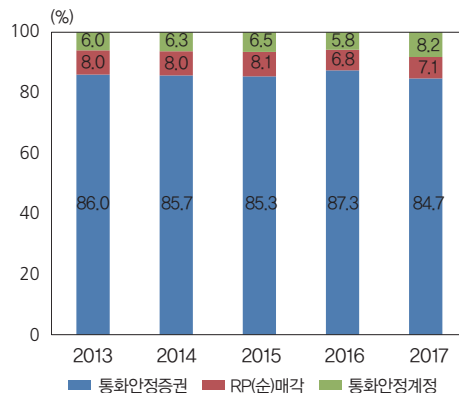
〈표 III- 5〉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균 기준)

	2016	2017				
		연간	I	II	III	IV
유동성조절필요규모	202.3	201.0	201.4	203.4	202.1	197.0
통화안정증권	176.7	170.2	168.6	171.1	172.7	168.5
RP(순)매각잔액	13.8	14.4	15.0	15.9	13.8	12.8
R P 매 각	13.8	14.4	15.0	15.9	13.8	12.8
R P 매 입	0.0 ¹⁾	0.0	0.0 ²⁾	0.0 ³⁾	0.0 ⁴⁾	-
통화안정계정	11.8	16.4	17.8	16.5	15.6	15.7

주: 1) 2016년 1월 6일 1일물 RP매입(1조 8천억 원)
 2) 2017년 1월 11일 1일물 RP매입(1조 8천억 원)
 3) 2017년 5월 10일 1일물 RP매입(1조 4천억 원)
 4) 2017년 9월 6일 1일물 RP매입(3조 원)
 자료: 한국은행

이에 따라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활용비중을 보면 통화안정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중 87.3%에서 2017년 중 84.7%로 축소되었다. 반면 RP(순)매각과 통화안정계정의 비중은 2016년 중 각각 6.8%, 5.8%에서 2017년 중 각각 7.1%, 8.2%로 확대되었다.

〈그림 III- 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활용 비중¹⁾



주: 1)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763억 원 (2014년 발행, 2015년 상환)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487억 원(2015년 발행, 2016년 상환)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불안 대응능력 강화

미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개시장운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점검·보완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2017년 3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불안 단계별 공개시장운영 대응방안을 점검하였으며, 9월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북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 공개시장운영 대응방안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10~11월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조절하는 등 신속적인 공개시장운영으로 대응하였다.

시장친화적 유동성조절수단 운영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포함) 시 응찰 및 낙찰수익률 단위를 유통시장 체계에 맞춰 세분화³²⁾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 단위가 일반적인 유통금리 단위와 일치하게 됨으로써 통화안정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간 정합성이 제고되었다. 아울러 수익률 단위 세분화에 맞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응찰금리 개수를 4개에서 6개로 늘려 대상기관의 응찰기회를 확대하였다.

12월에는 공개시장운영 수탁입찰제도³³⁾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수탁입찰 보증금 및 수수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직접 규율하는 대신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당사자 간 자율적인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였다. 아울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입찰 참여 시 자체입찰·수탁입찰 구분 응찰 의무 사항도 함께 폐지하였다.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기술방식을 개선하여 경제상황의 전망경로 부합 여부 및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월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추가 공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하는 등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된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발간 당월의 정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함으로써 보고서의 적시성을 제고하였다.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국회, 경제계, 금융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활발히 소통하였다. 연중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 출석하여 한국은행의 정책 및 업무수행과 금융경제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였다. 또한 경제동향간담회(4회), 금융협의회(3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현안과 통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세계 경제학계의 주요 석학들을 초빙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동시에 주요 해외컨퍼런스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및 우리 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총재 기자간담회 등 언론과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통화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신년사·창립기념사 등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일반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도 한층 더 주의를 기울였다.

32)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환매 시 응찰 및 낙찰 수익률 단위를 0.01%에서 0.005%로 세분화하고 이표채 종목명(표면금리-만기년월)의 표면금리 부분을 4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하여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33) 「공개시장운영규정」에 따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다른 대상기관 또는 대상기관이 아닌 자의 위탁을 받아 공개시장운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국내외의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화정책 방향과 금융경제 상황을 설명하였다. 2017년부터는 주요 현안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주재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형태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출입기자 간담회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간담회 개최 횟수를 연 5회로 확대하였다. 또한 교수, 기업 임직원, 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30회의 강연 및 연설, 다수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6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Tsinghua PBCSF Global Finance Forum

2017」, 7월 24일 페루 쿠스코에서 개최된 「The 9th Annual conference by CRBP&RBWC」 등에 연설자, 토론 패널로 참가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교환하는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세미나 사회 및 참석 등을 통해 학계,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방문하면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의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경제 현안과 우리나라의 화폐 발행 및 유통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강릉본부에서는 평

〈그림 Ⅲ- 6〉

금융통화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방문
(2017년 5월 26일, 평창)



자료: 한국은행

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경기시설을 방문하여 동계올림픽 준비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유치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표 Ⅲ- 6〉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활동

분 류	주요 참석자	개최주기
기자간담회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	연 5회
학회 활동 및 강연	경제연구원(소)장 및 대학교수, 대학생	수시
국외 세미나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수시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 경제단체 임원 및 중소기업 CEO	수시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안정업무

가. 금융안정 상황 분석·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³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정례적 분석·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안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파악에 노력하였으며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³⁵⁾로 확대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회의의 관련 커뮤니케이션도 대폭 강화하였다. 6·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³⁶⁾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9월 회의의 경우에는 2주 뒤 의사록 발표 외에 주요 논의내용을 회의 당일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 상황 및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금융안정정보고서를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문별 안정상황 분석과 향후 금리 상승 등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였다. 6월에 발간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누증요인을 점검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 등 최근 금융경제 여건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미친 영향, 시장금리 상승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주요 리스크 등을 점검하였다. 12월에 발간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국내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을 신용등급 및 금융업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거래상품별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연계 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

3월 및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

34) 2011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한국은행법」 제12조 제2항)는 목적조항이 추가되었다.
 35) 한국은행은 금융안정회의를 3·6·9·12월에 개최하고 있다. 6월 및 12월에 금융안정정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중간시기인 3월과 9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거시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였다.
 36)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은행법」 제96조).

내 취약요인 등 금융불안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등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을 점검하는 한편 금리상승 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변화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등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였다. 9월 회의에서는 가계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신용자 신용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수신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현황에 대해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추적·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SAMP)³⁷⁾을 활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시장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국내은행의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과 비은행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2016년에 금융안정 책무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금융시장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해 MI(Market Intelligence)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2017년 8월에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복원력 등 시스템적 리스크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FI(Financial Stability Intelligence)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³⁸⁾

금융안정 관련 조사연구 수행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바젤III 등 자기자본규제 강화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또한 장기적 금융안정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안정 전망모형 개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와 11건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금융혁신, 국가 간 금융연계성 등에 대해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 소속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통한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을 적시에 포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및 상시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금융기관

37)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에 핵심 사항인 시스템 리스크의 측정과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macro stress test)를 단일 체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합모형으로써 2012년 7월 개발되었다.

38) MI와 FI는 금융시장 참가자, 감독기관, 학계, 국제금융기구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수집한 금융경제상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활용하는 제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증진하였다.

주요은행에 대한 주제별 부문검사(4회)를 통해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취약부문과 신용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가계대출 검사 시에는 차주 채무상환능력 및 은행의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자영업자대출 부문에서는 부동산임대업대출 및 다중채무 자영업자대출과 관련한 리스크요인 등을 검사하였다. 신용리스크 실태 부문검사 시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의 요인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검사를 통해서 유럽·미국계 외은지점의 영업행태 변화요인을 심층 점검하였다. 또한, 개별은행 리스크검사(2회)를 통해서 해당은행 고유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였다.

〈표 III-7〉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회)

	2013	2014	2015	2016	2017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7	4	2	3	2
부문 검사	1	3	5	3	4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후에는 검사결과 의 정부 및 감독당국 앞 제공, 주요 검사내용의 금융안정보고서 수록 등을 통해 정책당국 및 금융시장 참가자가 금융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위

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검사 유관기관과 워크숍,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앞 검사결과 설명회, 여신 및 리스크관리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SC, HSBC, Citi, 도이치 은행에 대한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³⁹⁾ 등에 참여하여 글로벌은행의 경영전략, 영업성과 및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시 회생정리계획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동 규제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기관⁴⁰⁾으로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FSB 동료평가⁴¹⁾를 수검하는 한편 바젤Ⅲ 규제개혁 완료⁴²⁾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내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입장

39) 대형은행 본점이 있는 본국(home)과 해외 현지법인·지점이 영업하고 있는 진출국(host)의 감독당국이 해당은행의 경영상황, 감독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

40) 한국은행은 FSB의 5개 실무그룹, BCBS의 13개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41) FSB는 20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2017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및 정리체계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비은행부문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하였으며, 위기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건전성 규제 개선, 상호금융 중앙회 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42) BCBS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들이 신용 및 운영리스크, 레버리지비율, 자본화한 등에 관한 바젤Ⅲ 최종 규제안을 승인(2017년 12월)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바젤Ⅲ 규제개혁이 완료되었다.

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FSB 산하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은행감독실무 그룹 등의 회원기관으로서 역내 금융안정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회원국 간 공조를 통해 금융안정 관련 국제기구, 주요국 유관기관 등에 역내 의견을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 은행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가계부채점검반」 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 참여하여 정부·감독당국과 가계부채 종합대책(10월 24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효과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거시경제금융회의⁴³⁾」에 참여하여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영향,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 등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⁴⁴⁾가 우리나라 민간신용 수준 및 거시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였다.⁴⁵⁾

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2017년 중에는 미국 신정부의 출범 및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속,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글로벌 자금흐름과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 한도⁴⁶⁾, 외환건전성부담금⁴⁷⁾ 제도 등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구조 건전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외화 LCR⁴⁸⁾ 규제 도입 등 제도 개편 과정에 참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 동향과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 등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외국환은행 및 외국환중개사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43)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44)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신용공급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황기에 추가자본을 적립하고 위기 시에 동 자본을 손실보전 및 대출 재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동태적 자본규제를 가리킨다. 201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수준(0~2.5%)을 매분기 결정하고 있다.

45) 2017년 중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결정하였다.

46)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등 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포지션을 일정수준으로 제한(국내은행: 전월 말 자기자본의 40%, 외은지점: 200% 이내)

47)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 10bp를 부과하며, 부담금 부과대상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가 2년을 초과할 경우 할인된 요율(2년 초과 ~ 3년 이하 2bp, 3년 초과 ~ 4년 이하 3bp, 4년 초과시 4bp 할인)을 적용

48)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 = 고유동성 외화 자산/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유출액-유입액)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한·중통화스왑계약 연장 및 캐나다와의 신규 체결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이 제2선의 외환보유액으로서 금융안정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은행 양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의 강화에 힘썼다. 연초에는 만기도래한 말레이시아(1월), 호주(2월) 및 인도네시아(3월)와 연이어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호주는 스왑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스왑목적에 금융안정 기능도 새로 추가하였다. 하반기에는 북한 핵실험 및 사드 문제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정경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중 통화스왑계약의 연장(10월)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연초부터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계약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11월에는 그 결과로 캐나다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처럼 만기도래한 통화스왑계약의 순차적 연장에 이어 기축통화국과 신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층적인 금융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⁴⁹⁾

한편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양국 간 무역결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통화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화스왑계약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표 III-8〉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a 기준)	최근 체결·연장일	만기
자국 통화 스왑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중국	3,600억 위안/64조 원 (약 560억 달러 상당)	2017년 10월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17년 3월	2020년 3월
	호주	100억 호주달러/9조 원 (약 77억 달러 상당)	2017년 2월	2020년 2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17년 1월	2020년 1월
	UAE	200억 디르함/5.8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13년 10월	연장 협의중
미달 러화 스왑	CMIM	384억 달러 ^b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기준
 2)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 개선

한국은행은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우선 역내 국가(ASEAN+3)간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의 작동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ASEAN+3 장관·총재회의 등 역내 협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울러 2018년에는 ASEAN+3 의장국의 중앙은행으로서 CMIM 협정문 개정작업⁵⁰⁾을 주도하면서 동 개정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의견 조율과 협력관계 강화에도 힘썼다.

49) 이후 한국은행은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노력을 강화하면서 2018년 2월 스위스와도 신규로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50) 동 개정작업은 CMIM 협정문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첫 번째 정기점검(Periodic Review)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라.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금리·환율 등 가격 변수의 움직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 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3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7~9월, 11월)와 6차 핵실험(9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3·6·12월) 당시 「통화금융대책반⁵¹⁾」 회의, 총재 주재 긴급 「금융경제 상황 점검회의」, 「간부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시장불안 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51) 부총재, 통화정책·국제담당 부총재보 및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참고

III-1

캐나다 및 스위스와의 신규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의의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이 금융안정 및 국제금융협력의 주요 수단으로서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신규계약 체결을 2017년 들어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캐나다(2017년 11월) 및 스위스(2018년 2월) 중앙은행과 연이어 신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기축통화국으로까지 확충하게 되었다.

캐나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은 기존의 여타 통화스왑과 달리 만기가 특정되지 않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인 데다 사전에 최고한도가 설정되지 않는 등 캐나다가 여타 기축통화국과 맺은 것과 동일한 형태로 체결되었다. 스위스 중앙은

행과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3년에 100억 스위스 프랑/11.2조 원(약 106억 미 달러 상당) 규모로 만기도래 시 양자 간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캐나다와 스위스는 모두 전통적인 금융경제 강국⁵²⁾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AAA)을 받고 있다. 또한 양국은 선진 6개국 간 체결된 상설화된 양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network of bilateral swap lines)에 포함⁵³⁾된 6대 기축통화국에 해당된다.

이들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활용 가능한 강력한 외환부문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경제의 회복력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계약 체결은 주요 선진국인 캐나다와 스위스가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III-7)

캐나다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서명식



자료: 한국은행

52) 세계경제포럼(WEF)은 2017년 스위스와 캐나다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각각 1위와 14위,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를 각각 8위와 7위로 발표하였다.

53)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및 일본은행은 2013년 10월 양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상설화하여 금융불안 시 각국의 통화가치 안정에 상호협력하고 있다.

4. 발권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국가적 행사 등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념화폐를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위조지폐 식별요령의 홍보 등 위조지폐 유통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손상된 화폐를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하였다.

가. 화폐 발행

화폐수요 대응

2017년 중 한국은행은 38조 6,951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28조 1,759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현재 화폐 발행잔액은 2016년 말보다 10.8% 증가한 107조 7,735억 원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2016년의 추세가 이어져 오만원권이 2016년 말 대비 14.3% 증가한 반면 만원권은 2.4% 감소하였다.

〈표 III-9〉 화폐 발행·환수 및 발행잔액¹⁾

(억 원)

	2017 중			2017 말 발행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 ²⁾	386,456	281,385	105,071	1,054,154 (11.1)
오만원권	255,804	147,776	108,028	865,779 (14.3)
만원권	122,278	126,119	-3,841	158,606 (-2.4)
오천원권	3,882	3,507	375	13,837 (2.8)
천원권 ³⁾	4,491	3,983	508	15,932 (3.3)
주화 ²⁾	495	374	122	23,581 (0.5)
계	386,951	281,759	105,192	1,077,735 (10.8)

주: 1) ()내는 2016년 말 대비 증감률(%)

2) 기념화폐 제외

3) 오백원권 이하 구권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11억 515만 장으로 2016년에 비해 20.3% 감소하였다.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21.9% 감소하였고 주화도 오백원화 및 백원화를 중심으로 18.3% 감소하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 6,191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42.4% 감소하였다.

〈표 III-10〉 화폐 제조 규모¹⁾

	장 수(100만 장)		금액(억 원)	
	2016	2017	2016	2017
은행권 ²⁾	775.0 (4.7)	605.0 (-21.9)	200,750 (29.9)	115,350 (-42.5)
주화 ²⁾	612.1 (-1.3)	500.1 (-18.3)	1,025 (46.4)	841 (-17.9)
계	1,387.1 (2.0)	1,105.1 (-20.3)	201,775 (29.9)	116,191 (-42.4)

주: 1)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기념화폐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기념주화 14종 및 기념은행권 1종 발행

2017년 중 한국은행은 총 4회에 걸쳐 기념화폐를 발행하였다. 우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2차분)⁵⁴⁾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 12종을 11월 1일과 12월 19일에 나누어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기념지폐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1종을 11월 17일에 발행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참고Ⅲ-2>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 보전의 미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운 시리즈 기념주화로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2종(‘지리산’, ‘북한산’)을 9월 28일 발행하였다. 이 시리즈는 우리나라 22개 전체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약 7년에 걸쳐 계속 발행될 예정이다.

<그림 Ⅲ- 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2차분)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

화종	도 안	소재 · 규격
금화 3만원화	(앞면) 	· 금 99.9% · 지름 35mm · 무게 31.1g
	(뒷면) 	
금화 2만원화	(앞면) 	· 금 99.9% · 지름 28mm · 무게 15.55g
	(뒷면) 	

화종	도 안	소재 · 규격
은화 5천원화	(앞면) 	· 은 99.9% · 지름 33mm · 무게 15.55g
	(피겨 스케이팅)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켈레톤)	
	(앞면) 	
	(노르딕 복합)	
	(패럴림픽 종목)	
(뒷면 공통)		
(뒷면)		
(대회 엠블럼)		
(대회 엠블럼)		
황동화 천원화	(앞면) 	· 구리 65.0%, 아연 35.0% · 지름 40mm · 무게 26.0g
	(대회 마스코트(수호령))	
	(대회 엠블럼)	
	(대회 마스코트(반다비))	
	(뒷면) 	
	(대회 엠블럼)	

자료: 한국은행

5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1차분) 11종은 2016년 11월 18일 발행되었다.

〈그림 Ⅲ- 9〉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화종	도 안		소재 · 규격
	(앞면)	(뒷면)	
은화 3만원화 (지리산)			· 은 99.9% · 지름 32mm · 무게 14.0g
은화 3만원화 (북한산)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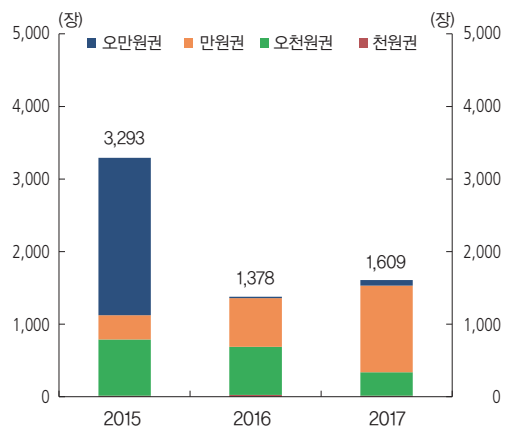
나. 화폐 유통

위조지폐 유통방지 등 홍보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버스, 지하철, 영화관 스크린,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앱 등이 홍보매체로 활용된 가운데 위조지폐 식별 요령 등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경찰서 등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화폐사랑 UCC 공모전」(4회차)을 개최하여 82편의 동영상 응모작 가운데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밖에 화폐위조범 검거에 크게 공헌한 경찰서 등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였다.

2017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609장인데, 동일 기번호 만원권 위조지폐가 다량 발견되면서 2016년(1,378장)보다 231장 증가하였다. 다만 유통은행권 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3장으로 2016년과 같았다.

〈그림 Ⅲ-10〉 위조지폐 발견장수



자료: 한국은행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 제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회수한 화폐 중 재사용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함으로써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 7,693억 원이며, 장수 기준으로는 6억 174만 장이었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3조 7,668억 원(5억 3,457만 장), 주화가 24억 6,424만 원(6,716만 개)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46억 395만 원으로 2016년(36억 2,881만 원)보다 26.9%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신권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에도 전국적으로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고, 돈 깨끗이 쓰기 및 동전 다시 쓰기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림 Ⅲ-11>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17년 9월 27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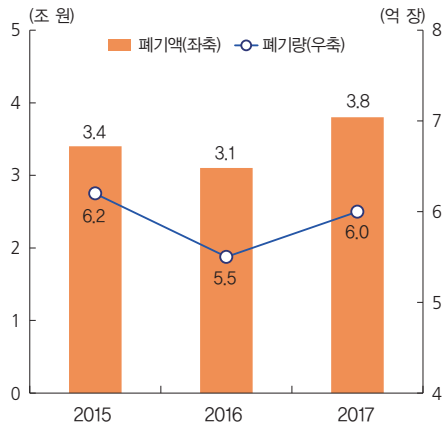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화의 유통 원활화

한국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2만여 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6월⁵⁵⁾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2억 9,560만 개(408억 원)의 주화가 교환되었는데, 이는 2016년 주화 발행량의 49.3%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사회복지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전모금사업에 소형 저금통 29만 개를 지원하여 약 6억 원의 동전을 모금하는 등 주화의 유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다.

<그림 Ⅲ-12>

화폐 폐기규모



자료: 한국은행

55) 통상 5월에 실시하였으나, 2017년에는 5월 중 공휴일이 많고 발권국의 강남본부 건물로 이전 등이 있어 6월에 실시하였다.

다. 국내외 협력

한국은행은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였다. 아울러 수사 또는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검찰청으로부터 인도받아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한편 매 2년마다 개최되는 「태평양연안국 은행권 컨퍼런스(Pacific Rim Banknote Conference)」, 「통화 컨퍼런스(Currency Conference)」 등에 참석하여 해외 중앙은행 및 조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최신 은행권 위조방지장치 개발 동향, 화폐 및 발권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참고

III-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발행

한국은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국내 외에 널리 홍보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기념은행권 1종을 2017년 11월 17일에 발행하였다. 기념은행권 액면은 2천원, 규격은 가로 140mm, 세로 75mm로 하여 현용권과 구분되도록 하였다.⁵⁶⁾ 기조색은 겨울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회색으로 하였다.

앞면 디자인은 동계올림픽대회의 주요 7개 경기 연맹 소속 종목을 한 종목씩⁵⁷⁾ 도안 소재로 넣되 스피드 스케이팅을 중심에 두고 다른 6개 종목을 보조적으로 표현하였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호로 참가한 최초의 올림픽대회(동·하계 포함)⁵⁸⁾ 종목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주 도안소재로 하였다. 뒷면은 18세기 후기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를 소재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와 소나무를 표현하였고 현용 오만원권 뒷면과 동일하게 세로방향으로 디자인하였다. 「송하맹호도」는 우리나라 호랑이의 형상(눈, 털 등)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동 기념은행권이 우리나라의 법화(法貨)인

점을 고려하여 위조방지장치도 현용 오만원권에 준하는 높은 수준으로 적용하였다. 주요 위조방지장치로는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홀로그램, 숨은그림, 색변환 잉크 등이 있다. 기념은행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특별법⁵⁹⁾에 근거하여 발행을 요청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수용하면서 발행되었다. 총 발행량은 230만 장(날장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념은행권은 동 조직위원회가 전량 인수하여 국내외에 판매하였다.

〈그림 III-1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 도안



자료: 한국은행

56) 가로(140mm)는 현용 천원권(136mm)과 오천원권(142mm)의 사잇값이고, 세로(75mm)는 현용권(68mm)보다 7mm 크다.
 57)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아이스하키,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루지, 봅슬레이
 58) 1948년 제5회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대회에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선수 3명이 최초로 출전하였다.
 5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5. 지급결제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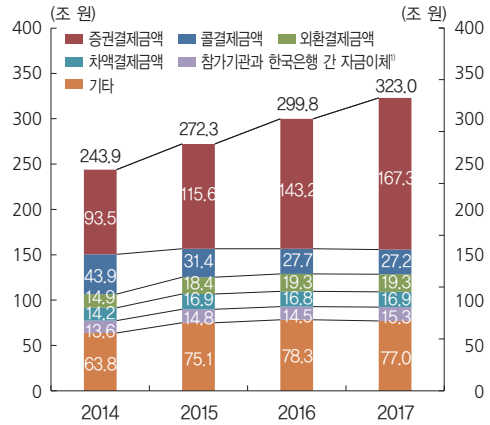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간 자금 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는 가운데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서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를 감시⁶⁰⁾하고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 한은금융망 운영

증권결제자금 증가세 지속

2017년 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이체는 일평균 1만 6,521건 및 323조 원으로 건수 및 금액이 2016년에 비해 각각 7.6% 및 7.8%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종류별로는 콜 결제자금이 감소한 반면 기관 간 RP를 중심으로 증권결제자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원화자금 결제규모 대비 증권결제 비중은 2016년 중 47.8%에서 2017년 중 51.8%로 확대되었다.

〈그림 III-14〉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규모 (일평균)



주: 1) 공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한국은행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 금융회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2조 3,741억 원으로 2016년보다 감소하였다. 일중당좌대출⁶¹⁾ 일평균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16.3% 감소한 3,18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일중RP⁶²⁾ 일평균 이용금액은 금융투자회사의 일중RP대상채권 거래가 감소하면서 2016년보다 16.1% 감소한 일평균 2조 559억 원을 기록하였다.

60)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61) 은행들의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62)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회사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III-11〉 일중 결제유동성 공급 규모
(일평균)

	(10억 원, %)			
	2015	2016	2017	증감률 ²⁾
일중당좌대출 ¹⁾	394.5	380.2	318.2	-16.3
일 중 R P	2,613.7	2,449.8	2,055.9	-16.1
계	3,008.2	2,830.0	2,374.1	-16.1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결제전용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2016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인프라⁶³⁾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⁶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중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시스템에 대하여 PFMI 24개 원칙 중 관련 18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관간조건부매매결제시스템의 결제완결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지속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국

제기준에 맞는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 국내은행과 4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와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검사결과 국내은행은 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중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나, 차액결제 및 IT 운영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일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시스템 장애 및 재해 발생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에 신속히 보고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였다.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 마련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킹, 악성코드 배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을 확장한 개념인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크

63)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새로운 국제기준이다.

65)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핵심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2017년 8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이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⁶⁶⁾을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59개 질문항목으로 구성된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동 평가지침은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과 참가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 수준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 수행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시장의 이상 과열에 대응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 TF 등에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BIS, 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가상통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및 그 기반 기술인 분산원장기술 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향후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시

한국은행은 국민의 현금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전의 제조 및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7년 4월 20일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동 사업은 소비자가 시범사업 참여 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 결제 후 남은 잔돈을 해당 매장이 수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식의 동전적립 서비스이다.

당초 시범사업은 5개 유통업체(전국 2만 3,050개 매장) 및 7개 선불전자금융업자 참여로 개시되었는데, 시범사업자 추가 모집을 통해 2017년 말에는 6개 유통업체(전국 3만 6,500개 매장) 및 10개 선불전자금융업자로 확대되었다.⁶⁷⁾

〈표 III-12〉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자 현황
(2017년 말 현재)

적립 매장	적립가능 선불전자지급수단
롯데(백화점, 마트, 슈퍼)	L.POINT
세븐일레븐	네이버페이포인트, 캐시비
이마트24, 이마트	SSG머니
CU	캐시비, 티머니, 하나머니
GS25	캐시비, 티머니, 하나머니, 한페이, DGB유페이

자료: 한국은행

66) 「Guidance on cyber resilience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2016년 6월) :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67)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등록된 선불전자금융업자이면서 동전적립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된 민간사업자들을 상시 모집 중에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자 추가 모집」(2017년 7월 10일) 참조)

2017년 중 시범사업 참여매장을 통해 동전이 적립된 실적은 일평균 3만 4천 건 및 600만 원 수준을 기록하였다. 동 사업은 동전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일부 효과⁶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 2017년 중 동전적립서비스 이용 실적 (일평균)

	(건 천 원)			
	2/4분기 ^{a)}	3/4분기	4/4분기	연중 ^{b)}
건수	34,449	34,324	32,962	33,870
금액	5,804	5,997	6,088	5,975

주: 1) 시범사업 실시(2017년 4월 20일) 이후
자료: 한국은행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주요국 20개 중앙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PFMI 이행점검(peer review)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직원 방문연수 등을 통해 해당 중앙은행에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정책조언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의 협력도 지속하였다.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결제 워킹그룹(WGPSS, Working Group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의장직을 2016년부터 수임하고 있다. 2017년 중에는 의장으로서 주도해 온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동 워킹그룹의 명칭 변경⁶⁹⁾ 및 구조 개편을 주도하였다.

아울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주요 연구 및 논의⁷⁰⁾에 활발히 참여하여

68) 2017년 중 동전 순발행액은 1998년(-683억 원) 이후 최저치인 122억 원으로 2000~2016년 중 연평균 순발행액 842억 원을 대폭 하회하였다.

69) EMEAP 지급결제 워킹그룹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으로 개명할 예정이다.

70) 국제기준 이행상황 점검, CCP 재무리스크 관련 PFMI 후속지침 제정, 신속지급서비스에 대한 분석보고서 작성 등이 해당된다.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가. 외국환업무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외환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및 외환거래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 시행 발표, 7월 이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에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등⁷¹⁾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점검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3월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고조되었던 9월에는 국외사무소와 연계한 24시간 비상점검체제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외환부문 비상대응계획을 점검·보완하여 불안 심화 시에 대비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현상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정에 참여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외환시장 실무그룹 회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 제정 실무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다. 동 규범은 런던시장 환율조작 사건 등 일련의 위법행위를 계기로 외환시장의 신뢰 회복 및 청렴성 제고를 통해 시장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2017년 5월 동 규범의 공표 시 한국은행은 싱가포르, 홍콩, 호주, 인도 등 아시아권 중앙은행들과 공동으로 지지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규범의 효과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⁷²⁾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시장조성자⁷³⁾ 제도 운영,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부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를

71)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8회(미 연준 FOMC 회의, 북한 핵실험 관련 등), 긴급간부회의 2회(대통령 탄핵 관련), 금융·경제상황 회의 1회(추석 연휴 기간)

72) 한국은행이 속해 있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향후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관리하는 글로벌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도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되었다(2017년 8월).

73) 12개 시장조성자 은행들은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매입/매도 호가를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통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모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과 협력하여 2016년 6월 개설된 상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2017년 중 일평균 거래량이 2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홍콩·런던·싱가포르에 이어 4번째로 활성화된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력하여 소액해외송금업 허용⁷⁴⁾, 외환거래 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 및 고객의 신고절차 면제 범위 확대⁷⁵⁾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와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해 외환시세 조작 및 외환거래질서 훼손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운용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보전을 위해 원리금의 회수불능 등 신

용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환보유액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893억 달러로 2016년 말에 비해 182억 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3,795억 달러로 2016년 말 대비 178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SDR은 5억 달러 증가, IMF 포지션은 1억 달러 감소하였다. 금은 48억 달러로 2016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I-14〉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2015	2016(A)	2017(B)	증감(B-A)
외환보유액	367,961	371,102	389,267	18,165
외환	358,514	361,701	379,477	17,776
SDR	3,241	2,878	3,374	496
IMF포지션	1,412	1,727	1,621	-106
금	4,795	4,795	4,795	0

자료: 한국은행

74)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 20억 원, 전산설비, 전문인력 및 외환전산망을 보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2017년 6월 27일

75) 외환거래 시 은행 등의 확인의무를 면제하는 금액이 건당 미화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외국환거래규정〕 개정, 2017년 6월 29일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이 중 투자자산은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매각 시 거래비용이 작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및 예치금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과 직접투자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자금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신속한 자금이관을 통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에는 채권과 함께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위탁자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채권도 신용도가 높으며 주식 또한 우량 상장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 시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017년 말 현재 현금성자산은 3.2%, 직접투자자산이 77.7%, 위탁자산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변화에의 신속적 대응

2017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등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세 개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유럽 지역 정치 리스크 완화 등으로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산구성 면에서는 외환보유액 증가에 대응하여 투자자산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위탁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통화구성 면에서는 미 연준과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 차별화 축소로 미 달러화가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미 달러화 표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유로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현재 보유 외화자산 중 미 달러화 비중은 68.1%로 2016년 말에 비해 2.2% 포인트 감소하였다.

상품별로는 세계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유동성 안전자산인 정부채와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고수익 자산인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반면 정부기관채 등 안전성과 유동성이 중간 정도인 비정부채 비중을 축소하여 전체 리스크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I-15) 외화자산¹⁾ 구성 내역
(기말 기준)

	(% , %p)			
	2015	2016(A)	2017(B)	증감(B-A)
1. 자산별				
현 금 성 자 산	4.5	4.7	3.2	-1.5
투 자 자 산				
직접투자자산	80.0	77.3	77.7	0.4
위 탁 자 산	15.5	18.0	19.1	1.1
2. 통화별				
미 달 러 화	66.6	70.3	68.1	-2.2
기 타 통 화	33.4	29.7	31.9	2.2
3. 상품별				
예 치 금	5.9	6.5	6.8	0.3
유 가 증 권				
정 부 채	35.7	36.9	37.5	0.6
정 부 기 관 채	22.7	21.0	19.2	-1.8
회 사 채	16.4	14.8	14.7	-0.1
자 산 유 동 화 채	13.1	13.1	13.2	0.1
주 식	6.3	7.7	8.6	0.9
계	100.0	100.0	100.0	-

주: 1) (표 III-14)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자료: 한국은행

운용체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2017년 중 운용목표, 자산배분 체계 등 외화자산 운용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운용목표 측면에서는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 목표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중장기 운용 방향을 확립하였다. 또한 운용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외화자산 배분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시장여건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운용지침을 개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재난, 전쟁이나 국내외 금융시장 위기 등의 유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별 외화자산 운용 비상대응계획을 보완하고 주기적으로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외화자산 운용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였고 보안 장비를 증설하는 등 외화자산의 결제보안성을 강화하였다.

운용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자산 규모가 확대되고 외화채권 매매규모 증가 등으로 중개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국내 증권사를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다양화하였다.

아울러 회사채 및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집단소송 등 법무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보관기관을 선정하는 등 법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장외 파생거래 시 예상되는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관리 기준⁷⁶⁾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76) 장외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이후 금리 등 시장가격이 변화하면 파생계약 당사자 간의 평가손익이 달라지게 되고 상호간의 계약 불이행 위험(거래상대방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평가손익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동 담보제공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담보관리 방식을 개선하였다.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업무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외화자산 운용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7월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외화자산 운용 자문프로그램을 통해 자산배분, 투자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BIS-멕시코 중앙은행 공동 주최 컨퍼런스, 세계은행 고위급 포럼 등 국제기구 등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운용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등 외환보유액 운용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신흥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CBSP(Central Banking Study Program)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직원에 대한 개별 연수 등을 실시하여 신흥국 중앙은행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운용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 국제협력업무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변화된 금융 및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G20, IMF, BIS 등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금융계와의 정책 공조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제 공익 제

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ASEAN+3, SEACEN, EMEAP 등 역내 협의체의 활동 및 논의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역내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대해 포괄적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앙은행 직원대상 연수프로그램 확대 및 장·단기 직원파견 등을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수행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맞추어 제공하였다.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3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4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이 합의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적극적인 이행과 이의 영향에 대한 평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디지털화·기술혁신 등이 경제성장, 금융안정 및 조세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공조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방안 마련,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IMF·세계은행 회의(2회) 및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6회)에서는 통화·재정·구조개혁

정책을 통한 성장 촉진, 포용성 확대 및 불평 등 축소,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 및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저소득국 지원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계 차원의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III-16〉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3월 바덴바덴, 4월 · 10월 워싱턴 D.C.)	·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금융부문 발전 및 규제, 국제조세 등 · IMF 제15차 쿼타 일반검토 등 국제금융체제 개편 및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개혁 지속 방안 등
· IMF · 세계은행 회의 (4월 · 10월 워싱턴 D.C.)	· 세계경제전망, 세계금융안정 상황 및 글로벌 정책과제 등
·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 3, 6, 9, 11월 바젤, 5월 동경)	·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및 정책 과제 등

자료: 한국은행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AIB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 · 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현안 논의는 물론 산하 실무그룹(Working Group)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표 III-17〉 역내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 제20차 ASEAN+3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요코하마)	· 역내 금융 · 경제 동향, CMIM 협정의 유효성 제고 및 발전 방안 등
· 제16차 한중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요코하마)	· 각국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 역내 금융협력 강화 등
· 제22차 EMEAP 총재회의 (5월, 오를랜드)	· 글로벌 요인이 역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 제6차 EMEAP 중앙은행 총재 / 금융감독기구 수장 회의(5월, 오를랜드)	· 금융안정 리스크와 정책대응, 바젤 규제개혁의 역내 영향 등
· 제9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9월, 인천)	· 각국의 최근 금융경제 동향 및 정책대응 등
· 제53차 SEACEN 총재회의 (12월, 방콕)	·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추구 등

자료: 한국은행

우선 ASEAN+3의 통화 · 금융부문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역내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CMIM⁷⁷⁾과 관련하여 IMF와의 공동 자금지원 모의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역내국가와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CMIM 지원 및 회원국 거시경제 감시 목적으로 설립된 AMRO⁷⁸⁾의 신규 경영진 채용을 비롯한 주요 조직운용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 · 중 · 일 중앙은행 총재회의⁷⁹⁾를 개최함으로써 3개국 중앙은행 간 상호이해 증진과 정책공조를 통한 역내 금융협력 증진도 도모하였다.

한편, 지급결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EMEAP, SEACEN 등 역내 중앙은행 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였

77) ASEAN+3 국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양자간 스왑계약(BSA)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CMI를 다자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를 설립함으로써 역내 금융자원체제를 강화하였다.

78) ASEAN+3 국가들은 CMIM 협정문을 근거로 2011년 4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설립하였으며 2016년 2월 AMRO를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함으로써 역내 감시체제를 강화하였다.

79) 한 · 중 · 일 3국 중앙은행이 2009년부터 매년 순번제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국은행이 9월 13~14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였다.

다. EMEAP 산하 「지급결제 Working Group」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관련 공동연구 및 Subgroup 구조 개편 논의 등을 주도하였다. 이외에도 SEACEN의 「EXCO 자문위원회(EAC, EXCO Advisory Committee)」 멤버로서 SEACEN 센터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경험 공유 채널 확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업무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공유함으로써 중앙은행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먼저 지식교류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⁸⁰⁾의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운영방식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2016년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양국 중앙은행 간 우호적이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라오스중앙은행과는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더불어 몽골, 네팔을 신규 협력대상국으로 추가함으로써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였다.

〈표 III-18〉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2017년 중)

협력대상국	자문주제
라오스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 방안
베트남	환율 및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외환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캄보디아	환율·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몽골	몽골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외환시장 및 외환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네팔	경제전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개발

자료: 한국은행

운영면에서도 정책자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 연구기관을 발굴·참여시켰으며 「지식교류프로그램 운영규정」과 동 세칙, 절차를 재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정립하였다.

한편, 몽골, 네팔 및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내부감사, 지급결제 분야의 한국은행 전문가를 장·단기로 파견하는 등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자문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8개국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증견직원 49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화자산운용, 경제통계, 지급결제 분야에 걸쳐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을 방문한 37개국 중앙은행 직원 211명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도 실시하였다.

80) 한국은행 지식교류프로그램은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등의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표 III-19〉 중양은행 업무연수 개최 실적
(2017년 중)

개최일정	참석인원
1차 CBSP (외화자산운용, 3월 7일~3월 10일)	4개국 7명
2차 CBSP (통화정책, 4월 18일~4월 21일)	5개국 11명
3차 CBSP (경제통계, 6월 20일~6월 23일)	6개국 10명
4차 CBSP (금융안정, 10월 24일~10월 27일)	5개국 12명
5차 CBSP (지급결제, 11월 14일~11월 17일)	4개국 9명

주: () 내는 주제 및 일정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확대

한국은행은 2017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금 3억 5,882만 달러, 출연금 2,305만 달러 등 총 3억 8,187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으며 2017년 말 현재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규모는 총 161억 2,403만 달러에 이른다. 2017년에는 주로 국제개발협회(IDA)의 제17차 재원보충에 참여하기 위한 출자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관련 출자 등에 따라 출자·출연금이 증가하였다.

한편 2017년 말 현재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용자규모는 4억 1,856만 SDR로 이 중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용자규모는 3억 9,690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⁸¹⁾에 따른 용자 규모는 2,166만 SDR이

다.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용자가 1,166만 SDR이 증가하였으나 IMF가 신차입협정에 따른 용자액 중 1억 8,865만 SDR을 상환함에 따라 총 용자규모는 전년대비 1억 7,699만 SDR 감소하였다.

〈표 III-20〉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기말 기준)

(백만 달러)

	2016(A)	2017(B)	증감(B-A)
출 자 금	14,832	15,191	359
IMF	11,861	11,861	0
IBRD	263	263	0
IDA	1,551	1,693	142
ADB	293	293	0
AfDB·AfDF	403	439	36
AIIB	299	449	150
기 타	162	193	31
출 연 금	910	933	23
IMF	72	72	0
IBRD	34	34	0
ADB·ADF	582	605	23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 타	21	21	0
출자·출연금 합계	15,742	16,124	382

자료: 한국은행

〈표 III-21〉 IMF에 대한 용자 현황
(기말 기준)

(백만 SDR)

	2016(A)	2017 중		2017(D=A+B-C)	증감(D-A)
		용자(B)	상환(C)		
NAB	586	0	189	397	-189
PRGT	10	12	0	22	12
계	596	12	189	419	-177

자료: 한국은행

81) IMF가 저소득국가(LICs)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

7. 조사통계업무

가. 조사연구업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경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에서부터 통화·금융, 성장, 물가, 고용,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2017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성장세의 특징을 분석하고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⁸²⁾ 특히 글로벌 교역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및 제약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점

검하는 한편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및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내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새로이 추정하고 성장잠재력의 하락요인을 분석하였다.⁸³⁾ 특히 가계부채 누증, 부문간 불균형 등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노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 세대별로 보유한 부채의 특징을 살펴보고 건전성 평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부문간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선도기업과 후행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노동 수요·공급 지수 추정 및 노동공급을 조정할 실업률 시산을 통해 최근 노동시장 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⁸⁴⁾ 특히 2017년 중 우리경제의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였던 설비투자 호조와 관련하여 IT부문 투자 확대의 배경 및 향후 전망을 통해 향후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정부정책, 4차 산업혁명 등 여타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82)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의 특징 및 평가(2017년 10월), "2017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의 모니터링(상반기)(2017년 7월)

83)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2017년 7월)

84) 노동수요·공급 지수로 본 노동시장(2017년 11월)

물가 측면에서는 최근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특징 분석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생활물가의 상승가능성 점검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경제분석 모형의 개발·확충 노력을 지속하였다. 월별 실물·금융변수들을 이용해 GDP성장률의 기초적 흐름을 매월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기상황지수(BOK-COIN)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모형과 혼합주기 모형(MIDAS)을 추가한 단기전망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망의 예측력을 개선시켰다. 또한 분기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여 민간, 정부, 학계 등 경제주체와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장기 조사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별 연구 결과가 완성되는 대로 「BOK 경제연구」 등으로 발간한데 이어, 관련 논문 15편을 하나로 묶어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총서를 제작, 정부·국회·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이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금리와 은행 수익성 간

관계, 가계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충 및 교류 강화

연구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먼저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hallenges: The Decade Ahead」를 주제로 「2017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를 6월 초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및 국제기구의 저명 학자들⁸⁵⁾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정책 관련 종합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고령화, 포용적 성장과 고용,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지속가능한 성장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 컨퍼런스에서는 미 뉴욕 연준과 공동으로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Stability」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구성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9월 초에는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Sustained Growth in Asia」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도전과제 및 이에 대응한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과 무역 및 투자정책 등과 관련된 논문

85)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및 샌프란시스코 연준 존 윌리엄스(John C. Williams) 총재가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스티븐 데이비스(Steven Davis) 시카고대 교수, 니르 자이모비치(Nir Jaimovich) 남캘리포니아대 교수, 미하일 골로소프(Mikhail Golosov) 프린스턴대 교수, 에릭 프렌치(Eric French)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장용성 로체스터대 교수 등 해당분야 최고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들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⁸⁶⁾ 11월 초에는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와 공동으로 「Changing Inflation Dynamics」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동학 변화를 부문별 가격결정 행태의 이질성, 기대인플레이션의 역할, 소득분포에 대한 영향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⁸⁷⁾ 12월 초에는 일본은행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와 함께 IMF, BIS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대학과 대중국 무역, 은행의 자금조달구조,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에 관한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조사연구자료를 학계, 외국 중앙은행 등과 공유하고 한국은행의 연구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BOK 경제연구」 및 「경제분석」을 SSRN(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에 이어 경제학 논문 DB인 RePEc(Research Papers in Economics)과 BIS의 Central Bank Research Hub에 등록하였다.

86)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 및 고흥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고, 아담 포젠(Adam Posen) 피터슨연구소장,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창용 아시아태평양국장, 히로시 나카소(Hiroshi Nakaso) 일본은행 부총재, 조엘 모커(Joel Mokyr)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87)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가 개최사를, 서울대학교 박찬욱 부총장이 축사를 하였다. 노부히로 키요타키(Nobuhiro Kiyotaki) 프린스턴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스테판 윌리엄슨(Stephen D. Williamson) 웨스턴 온타리오대 교수, 토마스 웨스터만(Thomas Westermann) 유럽중앙은행(ECB) 부부부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논문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행내 협업연구 강화

조사연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분위기를 전행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내 부서 간 협업연구를 강화하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연구위원회⁸⁸⁾」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국내외 공동연구와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연구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이 참여 하도록 하는 등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및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구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지역본부는 지역소재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분기 작성하여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국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주력산업(IT·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운송·관광 등 전국 경기와 관련이 큰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 내용을 「지역경제보고서」 내 현장리포트에 수록하는 등 주력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영성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편제하였다.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취약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구고령화, 가계부채 등 지역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자료, 지역경제의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분석한 조사연구 자료 등을 작성⁸⁹⁾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⁹⁰⁾ 이 중 대구경북지역의 일자리 창출

88) 부총재와 경제연구원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10인의 주요 부서장(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89) 2017년 중 총 68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90) 2017년 중 총 60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및 소멸 양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광주전남 지역의 인구고령화와 지역성장, 경남지역 청년 실업 결정요인과 대응방안 등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경제 전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주제를 다룬 보고서를 선별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 공동연구보고서 모음집(통권 제7호)」을 발간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내 유관기관, 대학,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경제의 성장전략,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포럼 등을 다수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인구고령화 등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충 방안,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지역경제세미나를 활발히 개최⁹¹⁾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담당제⁹²⁾ 운영의 일환으로 안동·구미(대구경북본부), 하당신도시(목포본부), 원주(강원본부) 및 송도신도시(인천본부)에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을 위한 차별화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 도시재생, 신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현안 및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경제포럼을 개최⁹³⁾하여 지역민과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를 본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현지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⁹⁴⁾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최신 정책 동향 및 연구 조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외사무소는 미국·유럽 경제의 주요 이슈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국외사무소 워크숍⁹⁵⁾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외교류 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확충을 도모하였다.

91) 2017년 중 총 31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2) 지역본부 관할지역 내 행정·경제중심지로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말 현재 13개 지역본부가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93) 2017년 중 총 30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94) 뉴욕사무소는 6월에 뉴욕연준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5) 런던사무소가 11월에 개최하였으며 구미지역 국외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나. 통계업무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지표,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중앙은행의 전통적 통화금융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I-O),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와 함께 국제투자대조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조사(BSI), 소비자동향조사(CSI) 등 국가정책 수립 및 분석 시 자주 이용되는 26개 경제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big data)를 공식통계 편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빅데이터통계연구반을 신설(8월)하는 등 경제 전망 및 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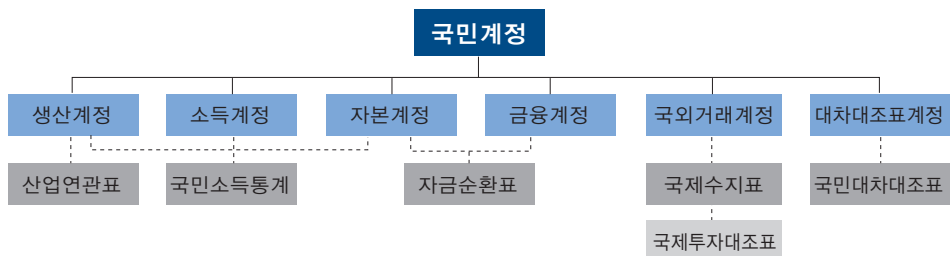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계부채 DB 분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 및 소득 계정, 중견기업 통계를 시험편제함으로써 통화정책 운용 및 경제전망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통계의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GDP 통계의 디지털·공유 경제 측정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GDP 통계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제통계 편제 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방향 설정, 외부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외국 주요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한국은행 작성 통계 중 하나인 기업경기조사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본개편을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표본개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 개발 및 확충

한국은행법상 금융안정 책무가 추가되면서 금융안정 관련 미시적 분석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15년에 구축된 가계부채 DB의 활용도 및 분석의 편의

(그림 III-16) 국민경제통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eyond GDP: Past Experiences and Future Challenges i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Well-Being」을 주제로 국제 소득 및 부 연구학회(IARIW: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에는 OECD, IMF 등 해외 통계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세계 우수 대학의 교수들이 참석하여 국민계정과 웰빙(well-being)의 관계, 웰빙

의 측정방법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경제통계」라는 주제로 한국통계학회와 함께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국내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이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통계기법, 경제통계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사례 등에 관해 토론하였다.

이와 함께 UN, OECD, IMF, 주요국 중앙은행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 및 실무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DGI⁹⁶⁾-2 이행 등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과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그림 III-17)

2017 IARIW-BOK 특별 컨퍼런스
(2017년 4월 26~28일, 서울)



자료: 한국은행

96) Data Gap Initiatives: 2009년 G20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익스포지)을 완료(DGI-1)한 후, 2016년부터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을 진행중이다(DGI-2).



자료: 한국은행

한편, 빅데이터 관련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또한 통계청과의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통계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연 71회)를 개최함으로써 통계의 홍보채널을 구축하고 경제통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국민소득, 국제수지 등 주요 통계 보도자료에 자세한 설명 및 시각화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한

국은행 작성통계에 대한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이 밖에 통계전용 홈페이지인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부서별 화폐발행 및 환수액,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교차통계 등을 추가 수록하는 등 통계목록을 확충하여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8. 국고 및 증권업무

가. 국고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국세 등 국고금을 납부하였을 때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를 정부 회계제도⁹⁷⁾에 맞추어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부족 시 대출해 주는 등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입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⁹⁸⁾에서 취급하고 있다. 2017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한 국고금 수입규모는 400조 원으로 국세수입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34조 원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으며 이는 1,187조 원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출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의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출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환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부터 지급하고 있다.

〈표 III-22〉 국고금 수납 및 지급 (조 원)

	2015	2016(A)	2017(B)	증감(B-A)
총수납¹⁾				
국고대리점 등	347	366	400	34
한국은행	1,001	1,210	1,187	-23
총지급¹⁾				
금융기관계좌 이체	566	583	607	24
한국은행계좌 이체 등	771	977	959	-18

주: 1) 국고금 수입 및 지출뿐만 아니라 국고여유자금 회수 및 운용,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국고계정 간 대체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국고대리점은 1만 6,966개로 2016년 말에 비해 217개 감소하였다. 이는 모바일 거래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은행들이 영업점을 축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371조 원으로 전년대비 57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 수입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법인회원에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면

97)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입·지출을 현금 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현금주의 회계제도와 「국가회계법」에 의해 경제적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두 종류로 운영하며 한국은행은 현금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거래만 수행하고 있다.

98) 신용카드를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는 기관으로 현재 금융결제원이 지정되어 있다.

제 혜택이 중단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국고금 납부가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

(표 III-23) 국고대리점 현황⁹⁾ 및 수납금액 (개, 조 원)

		2016(A)	2017(B)	증감(B-A)
기관수	수납대리점	7,200(23)	6,912(23)	-288(-)
	수납점	9,983(6)	10,054(6)	71(-)
	계	17,183(23)	16,966(23)	-217(-)
수납금액	수납대리점	297	354	57
	수납점	17	17	0
	계	315	371	57
국고금납부대행기관 수납금액		47	24	-23

주: 1) () 내는 대상기관 수
자료: 한국은행

국고전산망 운영

국고업무는 한국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재정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업무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로 처리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주전산기 장애 시 재해복구센터⁹⁹⁾에서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통신장애 발생 시

대체매체로 자료를 송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동 시스템을 이용한 대체매체 송수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¹⁰⁰⁾

2017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일평균 처리 규모는 37만 8천 건, 15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8%, 3.9%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국고여유자금 운용 및 국고금 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표 III-24)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

		2016	2017	증감률(%)
건수 (천 건)	실시간 전자이체	39.4	41.7	5.9
	일괄 처리	310.9	335.8	8.0
	(국고금 수납)	281.5	302.6	7.5
	(국세 환급)	29.4	33.2	12.9
	계	350.3	377.6	7.8
금액 (조 원)	실시간 전자이체	13.2	13.6	2.9
	일괄 처리	1.7	1.9	11.5
	(국고금 수납)	1.5	1.6	10.9
	(국세 환급)	0.2	0.3	15.4
	계	15.0	15.5	3.9

자료: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7년도 한도는 40조 원으로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99) 주전산센터가 마비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를 위한 백업 전산시스템이다.

100) 재해복구 모의훈련과 마찬가지로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표 III-25〉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조 원)

	2016(A)	2017(B)	증감(B-A)
통합계정	30.0	3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	8.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	2.0	-
계	40.0	40.0	-

자료: 한국은행

2017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1.4조 원으로 전년대비 0.1조 원 감소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11.7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3.7조 원 줄어 들었다. 이는 국제수입 증가로 연중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일시차입 수요가 둔화된 데 기인하였다.

〈표 III-26〉 대정부 일시대출 평잔 및 누계액 (조 원)

	2014	2015	2016(A)	2017(B)	증감(B-A)
평균잔액	3.1	3.2	1.5	1.4	-0.1
누계액	45.9	66.0	11.7	8.0	-3.7

자료: 한국은행

나. 증권업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 중앙은행 등에 대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고채권¹⁰¹⁾은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연중 233회에 걸쳐 100조 7,920억 원 발행되고 70조 9,850억 원이 상환되었다. 만기별로는 3년물, 5년물 및 10년물이 각각 20조 300억 원, 23조 8,500억 원, 26조 5,800억 원 발행되어 전체 발행액의 69.9%를 차지하였다.

〈표 III-27〉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10억 원)

	2016 말 잔액	2017 중			2017 말 잔액
		발행 (A)	상환 (B)	순발행 (A-B)	
국고채권	516,908	100,792	70,985	29,807	546,715
3년	62,080	20,030	31,051	-11,021	51,059
5년	107,993	23,850	22,325	1,525	109,518
10년 ¹⁾	200,033	26,580	17,609	8,971	209,004
(물가연동)	10,985	1,992	2,480	-488	10,497
20년	98,248	10,005	-	10,005	108,253
30년	47,454	20,108	-	20,108	67,562
50년	1,100	219	-	219	1,319

주: 1) 물가연동국고채권(10년물)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정부의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정상화¹⁰²⁾ 등 국고채 시장 개선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증권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를 세분화함으로써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간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재정증권¹⁰³⁾은 28일물 및 63일물로 연중 경쟁입찰을 통하여 각각 2회 및 6회에 걸쳐 7조 9,400억 원 발행되었으며, 발행된 증권은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101)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102) 국고채전문딜러가 신고한 BE(Break-even Inflation rate)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10년 만기 국고채권 경쟁입찰일 전 5영업일간의 장내체결 BE 평균값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하였다.

103) 정부가 회계연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다.

〈표 III-28〉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10억 원)

	2014	2015	2016	2017
발행	38,000	37,510	20,940	7,940
상환	38,000	37,510	20,940	7,940

자료: 한국은행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¹⁰⁴⁾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은 외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 등 국내채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는 한국은행과 개별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중앙은행 등에게 국내채권 투자 편의를 위해 증권 보관, 증권 및 대금 결제, 원리금 수령,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표 III-29〉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의 주요 내용

대상기관	대상증권	주요 업무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증권 보관, 증권 및 대금 결제, 원리금 수령, 원천징수, 거래 내역 관리 등

자료: 한국은행

2017년 말 현재 4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커스터디 업무 이용약정을 맺고 있다. 한편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간 국제협의체(OSSP Roundtable)¹⁰⁵⁾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 기금관리업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의 징수, 지출금의 지급 등 기금의 회계·경리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 등을 통해 연중 181조 2,716억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88조 9,123억 원,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대한 예탁 80조 2,127억 원, 예수금의 원리금 지급 11조 6,841억 원 등으로 운용하였다. 용자계정은 예탁금 및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1조 6,965억 원을 조달하여 예수금의 원리금 지급 1조 3,988억 원, 국책사업 등에 대한 재정용자 95억 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전대차관 회수 등으로 2,564억 원을 조달하여 1,800억 원을 일반회계에 대한 전출에 사용하였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수금 등으로 15조 8,944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출연금 415억 원, 한국은행 출연금 415억 원 등 831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

104) 현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호주(RBA)·프랑스(BDF)·독일(DBB)·캐나다(BOC)·일본(BOJ)·중국(PBOC)·네덜란드(DNB) 중앙은행 등이 외국 중앙은행 등에 대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5) 외국 공적기관에 대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가 참여하는 국제협의체(Official Sector Service Providers Roundtable)이다.

축¹⁰⁶⁾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연중 8만 24가구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통해 5,658억 원의 저축원리금을 수령하는 등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표 III-30〉 한국은행의 기금관리 주요 내용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p>정부의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다음의 계정을 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계정: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 · 용자계정: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 · 차관계정: 국제협력기구,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을 관리
공적자금상환기금	<p>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된 기금</p> <p>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p>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p>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된 기금</p> <p>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p>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자금 조달 및 집행 시기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게 되는 일시적인 잉여 자금을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단기 금융상품에 연중 619회에 걸쳐 운용하였다.

〈표 III-31〉 기금 조달(운용) 현황

(10억 원)

	2016(A)	2017(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192,720	181,272	-11,448
용자계정	2,850	1,697	-1,153
차관계정	408	256	-152
공적자금상환기금	11,580	15,894	4,31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1	83	-18

자료: 한국은행

10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1ha 이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경작 농민, 5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5ha 이하 산림 소유 또는 임차 입업인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3년 또는 5년 만기의 적금상품(연간 최대 납입한도 240만 원)으로 가구당 1인만 가입 가능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축만기 시에 저축가입자에게 연 0.9%~1.5%(저소득 가입자는 연 3.0%~4.8%)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9. 대외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스토리텔링 공모전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들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한국은행은 조사연구자료의 발간·배포, 각종 회의·행사의 개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화폐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해 알리고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조사통계월보」, 「BOK 경제연구」, 「해외경제포커스」 등 총 408건의 간행물과 388건의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를 생산·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 주요업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 가계부채

와 같은 최근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지급결제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와 기준금리 조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외부 전문가 또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에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소통의 기회로 삼았다. 2017년 처음 개최된 「한국은행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는 한국은행과 관련된 미담이나 체험담을 짧은 스토리 형식으로 구성한 응모작 196편 중 6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행 직원과 국민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화정책 경시대회¹⁰⁷⁾」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관점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결선대회에서 장려상을 신설하고 각종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대학생들이 통화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경제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외 경제 현안에 관한 최신 정보를 학계, 연구기관 등과 공유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와 정책을 알리는 데 힘썼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 및 실시간 소통을 위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였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책자료, 조사연구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

107)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44개 대학 69개 팀 총 276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17년 5월 11일)



자료: 한국은행

이트하고 「이슈알기」 메뉴를 신설하여 관심이 높은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이슈알기」 메뉴에서는 미 연준 금리인상,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가계부채 현황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관련 조사연구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2017년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 이벤트」 등의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용자들이 퀴즈를 풀면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동전 없는 사회」 등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를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게시하고 유튜브를 통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업무를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하여 주요 보도자료에 대한 인포그래픽 자료와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경제교육자료 등 각종 동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표 III-32〉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기간 중) (천 명)

	2015	2016	2017
홈페이지 방문자 수	2,421	2,477	2,786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20〉

터키중앙은행 소장 미술전 및 터키화폐 특별전



자료: 한국은행

〈표 III-33〉 한국은행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운영 현황¹⁾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카카오스토리
개설 시점	2013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10월
수록 컨텐츠 수(개)	620	887	868	1,233	662

주: 1) 2017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일반인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화폐와 금융경제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중 25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한국-터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터키중앙은행 소장 미술전」 및 「터키화폐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하고 터키의 역사와 문화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하였으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화폐가 담은 동계올림

픽」 기획전을 통해 동계올림픽 및 스포츠 기념 화폐를 전시하였다. 또한 박물관 내 상평통보갤러리를 개편하는 등 관람시설을 개선하였다.

한국은행은 예술계를 후원하기 위해 창립 이후 미술품을 꾸준히 구입해 왔는데 2002년 한은갤러리 개관 이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7년에는 「가을을 그리다」 기획전을 개최하여 가을을 소재로 그린 주요작품 22점을 공개하였다.

〈표 III-34〉 화폐박물관¹⁾ 관람자 수 (기간 중) (천 명)

	2015	2016	2017
관람자 수	255	277	255

주: 1) 지역본부 화폐전시실 포함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외환심사, 화폐수급, 통화정책 등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질의와 민원에 신속하고 친절히 응대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표 III-35)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
(기간 중) (건)

	2015	2016	2017
접수건수	1,226	1,078	1,263
처리건수	1,226	1,078	1,263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한국은행 직원들은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무료급식, 요양원 방문 등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결손아동, 독거노인 등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도 수시로 실시하였다.

한편 기록문화유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 창립 이래 소장해오던 고서(古書) 총 408종 2,423책을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앞 위탁관리하는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위탁한 고서 중 69종은 희소 가치가 있는 희구본으로, 이 중 5종은 문화재적으로도 가치있는 귀중본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위탁을 기념하

한국은행-서울대학교 MOU 체결
(2017년 3월 7일)



자료: 한국은행

고 사료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특별전(「규장각에서 만나는 한국은행의 서가」)을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III-3

2017년 한국은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은행은 업무수행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외부 전문가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일반 국민 1,000명과 정부·국회, 학계·연구소, 언론, 금융기관, 기업 등 전문가 3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 대상 조사는 표본 집단을 2016년 조사 대비 2배(500명 → 1,000명)로 확대하여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앙은행의 역할 충실성(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는 일반 국민이 59.0점, 전문가 그룹은 67.9점으로 두 그룹 모두 2016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업무수행¹⁰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종합평가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 모두 평가점수가 상승했다. 조직가치¹⁰⁹⁾에서도 전문가 그룹과 일반국민 모두 2016년에 비해 평가가 개선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2014년 이후 업무수행 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14년 66.4점 → 15년 64.6점 → 16년 62.2점)하였으나 2017년에는 통화정책, 외환시장, 경제전망 업무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되면서 평가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11월 중 기준금리 인상, 캐나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 등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주도적인 역할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일반국민의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 개선은 「한국은행 스토리텔링 공모전」과 홈페이지의 「이슈 알기」 메뉴 신설과 같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하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표 III-36〉 한국은행 여론조사 결과

(점)

	일반 국민			전문가		
	2016	2017	증감	2016	2017	증감
종합	48.4	59.0	+10.6	62.7	67.9	+5.2
업무수행	53.1	60.0	+6.9	62.2	66.3	+4.1
조직가치	45.2	48.3	+3.1	55.3	57.8	+2.5

자료: 한국은행

108) 주요 업무(통화신용정책, 금융시스템 안정, 지급결제제도 운영, 화폐발행 및 유통, 경제조사 및 통계, 외환시장 안정) 부문별 업무수행 점수를 평가자 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109) 조직가치(공익, 중립, 책임, 소통, 전문성)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나. 대국민 경제교육

한국은행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및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제고를 위하여 대국민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현장 경제교육을 보면, 한국은행 직원의 실무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에 경제강좌를 확충하였다. 서강대, 연세대 경제대학원에 한국은행 전문강좌인 「정책과 시장 연구」 과목을 개설하였고,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 「경영경제특강」 및 「경제의 이해」 과목을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였다. 지역 소재 대학에도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론」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근의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경제강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분야 전문지식을 강의하는 「한은금융강좌」를 매주 개최하였다. 제700회 「한은금융강좌」에서는 현 금융통화위원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일부 강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공동으로 TV강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참고Ⅲ-4> 참조).

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에는 「청소년 경제

강좌(출강 및 한국은행 방문)와 「청소년 경제 캠프」 등 청소년을 직접 지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교사직무연수」, 「경제교육봉사단¹¹⁰⁾」 운영 등 간접방식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¹¹¹⁾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한국은행은 2017년 중 총 1,462회에 걸쳐 6만 9,303명을 대상으로 현장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Ⅲ-37〉 현장 경제교육 실적 (회, 명)

	2015	2016	2017
청소년교육	774 (36,315)	703 (34,106)	747 (31,435)
일반인교육	732 (39,613)	812 (45,249)	715 (37,868)
합 계	1,506 (75,928)	1,515 (79,355)	1,462 (69,303)

주: ()내는 교육인원 수
자료: 한국은행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온라인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경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PC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 동 홈페이지 및 유튜브 이용자가 경

110) 대학생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생 대상 경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교육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111)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금융소외계층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은
 금요강좌」 강의 동영상(46편)과 온라인 교육콘
 텐츠(6편)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특히 온라
 인 교육콘텐츠 중 2편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
 로 한 재무설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경
 제교육을 주제로, 재연드라마, 컴퓨터그래픽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교육 콘텐츠의 신규 제작·보
 급을 통한 온라인 경제교육 강화 노력의 결과,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가입회원 수는
 2017년 말 기준으로 29만 3,145명을 기록하여
 2016년 말 대비 1만 1,206명 증가하였다.

〈표 Ⅲ-38〉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가입자 수 (명)

2015	2016	2017
266,854	281,939	293,145

주: PC 및 모바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경제교육 관련 네트
 워크를 확충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경제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은행 경제교육포럼」을 발족하고 정례포
 럼을 연 2회 개최하였다. 여기서 발표된 좋은
 의견들은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등 경제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
 여하였다.

III-4

경제교육채널 다변화

한국은행은 대국민 경제교육의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경제교육채널을 다변화하였다.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6월 27일)하고, TV강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7월 중)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경제교실'이란 제목으로 방송대학TV(OUN)를 통해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또한 방영된 프로그램을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도 게재하였다.

〈표 III-39〉 방송대학TV(OUN) 방영 내용

방영일	주 제	강사
10월 23일	통계로 보는 한국경제	정영택 경제교육교수
10월 30일	대내외 리스크 점검 및 전망	장 민 조사국장
11월 6일	금리에 대한 이해	이환석 금융시장국장
11월 13일	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이승현 국제국장
11월 20일	지급결제의 이해	차현진 금융결제국장
11월 27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운용	이문형 경제교육교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23〉 방송대학TV 스튜디오 공개 강연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음으로 온라인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재연드라마, 컴퓨터그래픽 등이 반영된 종합구성물 콘텐츠 2편, 자료화면과 강의 동영상상을 합성한 e-learning 동영상 4편 등 총 6편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종합구성물 콘텐츠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입사원 재무설계」를 주제로 한 종합다큐멘터리 방식과, 「어서와, 경제교육은 처음이지? -자녀를 위한 경제교육」이란 주제로 강연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e-learning 동영상은 「행태경제학의 이해」, 「개인 신용·부채 관리의 이해」, 「은퇴설계와 자산관리」, 「고령화와 주택금융」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I-24〉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입사원 재무설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25〉 「어서 와, 경제교육은 처음이지?」



자료: 한국은행

IV

경영상황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1. 조직 운영

한국은행은 2017년 중 국제협력 업무의 중요성 증대, 통합별관 건축공사 기간 중 발권국 이전 필요성, 일부 지역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조직을 정비하였다.

가. 조직 체계

국제협력 기능 확충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참여 활동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제협력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2017년 1월 국제협력실을 국제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역할과 한국은행 내 국제협력 업무를 조정·통할하는 기능을 제고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협력국에는 기존의 협력총괄팀, 아태협력팀, 국제기구팀, 교류협력팀, 지식교류팀에 더하여 금융협력팀을 신설하여 국제국에서 수행해 왔던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다.

통합별관 건축공사 기간 중 발권 및 화폐수급 기능 유지

한국은행 본부의 통합별관 신축 및 본관 리

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기간(2017년 6월~2020년 하반기 예정) 동안 화폐취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권국을 강남본부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강남본부가 별도로 수행하고 있던 금융기관 화폐수급 업무 및 화폐정사 업무를 해당 기간 동안 발권국이 통합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였다. 동 조치로 강남본부의 화폐관리팀은 발권국 화폐관리2팀으로 변경되고 강남본부 업무팀의 화폐수급 업무는 발권국 화폐수급팀으로 이관되었다.

중국 경제 분석·연구 강화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 경제 위상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조사국 국제경제부 내 중국경제팀을 신설하였다.

중국경제팀 신설로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국제종합팀, 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으로 재편되었다.

일부 지역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지역 소재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광주전남본부로 원거리 화폐수송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과 관련 비용 및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경남본부(창원)와 전북본부(전주)의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하였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전북본부가 위치한 창

원과 전주에는 지방은행 본점이 소재하여 한국은행과의 화폐수급 거래 수요가 큰 데다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동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경남본부와 전북본부는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9월부터 화폐수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운영방식

CIO 도입 등 전산부문 운영방식 개선

한국은행은 2017년 1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제도를 도입하고 전산정보국장에게 CIO 직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전산정보국장은 한국은행 IT부문을 통괄하는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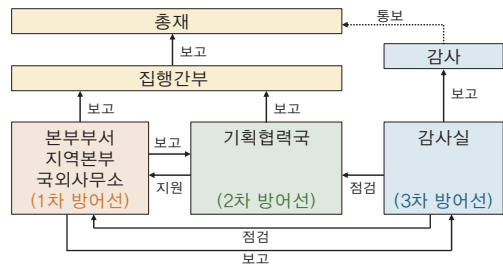
한편 경제통계국, 조사국, 통화정책국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주요 IT시스템 운영 또는 협업·지원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IT와 핵심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3중 방어모형(3-lines of defense model)에 따라 운영리스크¹¹²⁾를 관리하고 있다.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

는 부국장을 '운영리스크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관리자의 통할 하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차 방어선으로 기획협력국 내에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¹¹³⁾하여 전형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실은 3차 방어선으로서 내부 감사 등을 통해 1·2차 방어선의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IV-1〉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구조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는 「리스크 레지스터¹¹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리스크 레지스터는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등을 포함한 리스트로 대내외 업무여건 변화, 행내외 발생 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112) 부적절한 업무프로세스나 시스템, 직원관리 미흡,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 달성이 저해되거나 재무적 손실, 평판 훼손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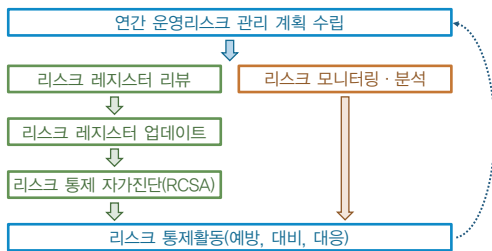
113) 2015년 2월 운영리스크반이 설치되었으며, 2017년 1월 운영리스크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114) 리스크 관리와 감사 업무의 체계적인 연계 수행을 위해 2015년 도입한 리스크 레지스터는 리스크와 함께 관리 조직, 반부패지표 여부,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에 대한 평가, 통제활동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에도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Assessment)을 각 부서에서 실시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및 행내외의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이 밖에 전세계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자 모임인 IORWG(International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¹¹⁵⁾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그림 IV-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사이버 리스크,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을 수시로 보완하고 있으며, 모의 훈련을 통해 준비성 및 유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2017년에도 포항 지진 대응 경험, 주요국 중앙은행 등의 대응 사례¹¹⁶⁾를 참고하여 한국은행의 위기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였으며, 대행근무방식의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다. 교육 훈련

신교육체계 기반 조성

한국은행의 신교육체계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수립됨에 따라 신교육체계의 세부 연수와 정별 운영방안 및 커리큘럼 설계 등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신교육체계가 지향하는 연수와 조직성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및 자문 기구인 「교육과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교육과정협의회」는 주요부서 부국장 등을 당연위원으로 구성하여 연수과정 설계 시 부서업무와의 연계성, 과정개설의 우선순위, 커리큘럼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2017년 중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직무연수 기초과정 및 응용과정의 세부 설계방안, 조직개발연수 구성, 연수학점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신교육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IMF 내부 연수제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IMF ICD(Institute for Capacity Development)의 연수 기획 및 운영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신교육체계를 더욱 개선·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특히 직무연수의 업무 연관성 제고, 관리자 대상 리더십연수 강화, 연수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신교육체계 세부 운영방안에 반영하였다.

115) 2018년 1월 기준 81개국 중앙은행(ECB 포함)과 BIS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에 가입하였다.

116) 2017년에는 8월 25일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에 따른 미 달러스연준의 대응, 9월 19일 지진 발생에 따른 멕시코중앙은행의 대응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신교육체계 시행에 맞춰 연수 데이터 베이스를 개편하여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연수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연수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였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직원 전문성 강화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였다. 직무심화과정의 경우 국외 저명교수와의 면담 및 토론 기회를 부여하는 Office Hour 및 Open Class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연수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경제론,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금융제도·법경제학의 이해 등으로 연수주제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강의·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유관부서에 제공하고 행내 포털시스템인 BOIS에 게재하는 등 연수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지적 자산과 경험(institutional memory)을 공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법경제학, 북한경제론 등 외부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의 신규 학술기본과정과 베이지언 통계학, 베이지언 VAR, DSGE Model 등 내부 수요가 많은 계량분야의 신규 이러닝 과정을 개설하였다.

한편 모든 직급별 및 소통 연수에 조직내 갈등관리 모듈을 신설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수프로그램에 내실 있게 구현함으로써 성 평등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품격 있는 조직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글로벌 직무역량 및 경력 개발 지원

직원들의 글로벌 직무역량 확충과 선진 업무수행 방식 습득 등을 위해 외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외 업무연수와 해당기관 파견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직무파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퇴직예정자의 은퇴 후 생애설계와 사회적응 능력 강화를 위해 퇴직준비연수제도를 확대·개편하였다. 2017년 11월 이후 동 제도는 사전 집합연수, 역량개발연수, 집중선택과정 등 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라. 고용 확대 및 채용 공정성 제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조직융화력 등 기본소양은 물론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7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G5) 70명을 포함해 모두 129명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큰 규모의 직원 채용을 지속한 것은 중장기 인력수급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적극 부응한 데 주로 기인한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였다. 지원자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 유발을 방지하고 지원서 작성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출신학교, 사

2018년도 신입직원 입학식
(2018년 1월 4일)



자료: 한국은행

진, 학점 등을 입력항목에서 삭제하였다.

인력운용의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신입 종합기획직원(G5) 채용 시 별도 전형을 통해 중국어 능통자 1명을 선발하였으며, 일반사무직원(C3) 채용 시에도 경력직원을 22명 선발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채용한 바 있다. 외자운용원장 등 개방형 직책과 박사급 조사연구인력 등 외부 전문가도 공모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다.

〈표 IV- 1〉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

채용구분	2014	2015	2016	2017
종합기획직원 ¹⁾	60	70	64	70
일반사무직원	12	20	30	30
일반기능직원	7	5	7	21
기 타	7	9	3	8
합 계	86	104	104	129
남	57	54	50	69
여	29	50	54	60
(비중)	(33.7)	(48.1)	(51.9)	(46.5)

주: 1) 채용실시연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른 지방인재 채용, 상업계 특성화고 별도전형을 통한 고졸자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노력도 지속하였다.

한편 최근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여성 지원자 확대 추세 등을 반영하여 채용직원 가운데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였다. 전체 채용인원 중 여성인력 비중은 2014년 33.7%에서 2017년 46.5%로 큰 폭 상승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여성 관리자 수도 크게 늘어나 2017년 말 현재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중¹¹⁷⁾이 15.2%를 기록하는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마.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청렴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패방지 인프라를 정비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본부의 대체근무지 이전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의 청탁금지법 및 내부 규정 준수여부를 계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진행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실정에 맞는 사례집을

117)

	2000	2005	2010	2016	2017
여성관리자	35	76	90	175	190
비중 ²⁾	3.6	7.1	8.2	14.6	15.2

주: 1) 종합기획직원 4급 이상 여성직원 2) 종합기획직원 1~5급 전체 인원 대비 여성관리자 비중
자료: 한국은행

발간·배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상담 및 각종 신고 시 직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부서별 반부패 시책 개발, 청렴지킴이 제도 운영, 청렴·반부패 아이디어 및 수기 공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청렴·반부패 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한국은행 내부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청렴시민감사관¹¹⁸⁾ 및 청렴파트너십¹¹⁹⁾ 제도를 운영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제안을 한국은행의 청렴·반부패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청렴한 중앙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제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바. IT시스템 고도화

2017년 중 한국은행은 ICT 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 IT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업무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PFMI)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갖춘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존 업무프로세스 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차세대 시스템의 기술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2018년부터 진행될 2단계 사업의 중합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2020년 완료예정인 2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시스템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

축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기능을 IT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IT부문의 조직과 업무절차를 혁신하였다. 2017년 1월 데이터분석 전담조직인 데이터분석반을 신설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입수·관리방식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고 분석인프라의 확충에 노력하였다. 또한 긴급한 정보화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 IT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시급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한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에 필요한 각종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추가하였다. Market Intelligence 시스템(MI-NET)의 정보공유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안정 업무에 특화된 Financial Stability Intelligence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가계부채 DB와 기초통계자료서비스시스템 등의 기능도 확충하였다.

셋째, 지능화·지속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여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보안관제를 연중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첨단 정보보호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주기적인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등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였다. 한편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 부서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118)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 제도

119)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공공기관들과 협약을 맺어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 및 청렴업무 관련 자료 등을 공유

넷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인적, 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하였다. 각종 장애 또는 재해 상황을 상정한 대응 훈련을 행 내 유관 부서 및 필요 시 유관 금융기관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전산기기의 처리용량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서버 등을 적시에 교체하였으며 통신속도 증속 등을 통해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사. 통합별관 건축 추진

한국은행은 국가중요시설인 본부 건물들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한층 강화¹²⁰⁾하기 위해 통합별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1별관은 철거 후 통합별관으로 재건축하고, 근대건축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2별관과 주 근무공간인 본관은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¹²¹⁾

아울러 2별관을 방문자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은행 주변에 공원 및 보행로 등을 확충하여 국민을 위한 개방 및 소통 공간 확대에도 힘을 예정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화폐박물관(사적 제280호)과 한국은행 일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재의 보존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합별관 건축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심의(2016년 10월), 건축허가(2017년 1월) 등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였으며, 통합별관의 세부 설계 작업을 2017년 6월에 완료하였다. 또한 인근에 대체근무지를 마련하여 6월 중 이전¹²²⁾을 완료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업무연속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합별관 본공사에 앞서 대국민 소통공간이자 방문수요가 높은 화폐박물관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화폐박물관 가설시설공사를 미리 추진하여 2017년 10월에 완료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사업 추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 사업일체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및 계약절차를 비롯한 사업의 전 과정을 조달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내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IV- 5〉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자료: 한국은행

120) 보안강화를 위해 건물 내부공간 및 이동동선을 시설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관리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내진성능 강화, EMP 및 화재방 보호설계가 적용된 비상대비시설 등의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21) 한국은행 본부 부지에는 구관(중공: 1912년), 본관(1987년), 1별관(1964년), 2별관(1932년) 및 소공별관(1965년) 등 총 5개의 건물이 산재해 있다.

122) 본부 부서 대부분은 인근 대체근무지(삼성생명본관빌딩)로 이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화폐 교환 및 수급 등의 업무는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한국은행 강남본부 건물로 이전하였다.

2. 재무 현황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발권력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국외부문에서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함과 동시에 외화자산을 매입·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치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폐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과 외화예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¹²³⁾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자산

2017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는 470조 5,847억 원으로 2016년 말의 480조 3,203억 원보다 9조 7,356억 원 감소하였다.

주요 항목을 보면 유가증권과 예치금 잔액이 각각 340조 8,719억 원, 23조 8,416억 원으로 2016년 말에 비해 31조 1,946억 원, 2조 4,765억 원 감소하였다. 외환평가조정금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24조 441억 원 증가하였다.

부채 및 자본

2017년 말 현재 부채 규모는 455조 5,625억 원으로 2016년 말의 466조 8,976억 원보다 11조 3,351억 원 감소하였다.

주요 항목별로는 예금 잔액이 98조 9,803억 원으로 2016년 말 대비 16조 1,532억 원 감소하였으나 화폐발행 잔액은 107조 9,076억 원으로 2016년 말에 비해 10조 5,253억 원 증가하였다.

2017년 말 현재 자본 규모는 15조 222억 원으로 2016년 말의 13조 4,227억 원보다 1조 5,995억 원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별로는 법정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각각 1조 134억 원, 5,861억 원 증가하였다.

손익

2017년 중 당기순이익은 2016년까지의 기준금리 인하효과 등으로 통화관리부문 비용이 감소하면서 2016년의 3조 3,779억 원보다 5,861억 원 증가한 3조 9,640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수익은 2016년보다 1조 7,836억 원 감

123)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이 결산상 순이익금의 1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소한 12조 2,425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가증권매매익이 1조 1,572억 원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하였다.

영업비용은 통화안정증권이자 및 유가증권 매매손이 각각 4,800억 원, 1조 736억 원 감소함에 따라 2016년보다 2조 5,792억 원 줄어든 7조 124억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 처분

2017회계연도 당기순이익 3조 9,640억 원 중 1조 1,892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415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2조 7,333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2017년도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표 IV- 3〉

대차대조표 (제68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67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백만 원)

과 목	2017 말	2016 말
자 산		
I. 유동자산	451,370,624	460,759,286
1. 현금	2	156
2. 지급은	5,137,100	5,794,461
3. 특별인출권보유	3,615,181	3,478,035
4. 유가증권(주석 2)	340,871,922	372,066,535
가. 국채	14,831,614	14,499,405
나. 정부보증증권등	-	-
다. 외화증권	326,040,308	357,567,130
5. 예치금(주석 3)	23,841,632	26,318,114
가. 당좌예치금	13,348,877	11,547,623
나. 정기예치금	10,492,755	14,770,491
6. 당좌대출	-	-
7. 자금조정대출	-	-
8. 할인어음	-	-
9. 어음대출(주석 4)	17,185,503	17,328,528
10. 증권대출(주석 4)	-	1,745
11. 환매조건부매입증권(주석 5)	-	-
12. 정부대출금(주석 4)	1,336,200	1,289,800
13. 국제금융기구대출금(주석 4)	637,111	964,497
14. 외국환	81,462	86,103
15. 대리점	1,281,940	1,058,533
16. 본지점환	-	-
17. 기타자산	57,382,571	32,372,779
(외환평가조정금)	(24,044,080)	(-)
II. 비유동자산	19,214,090	19,561,003
1. 투자자산	18,697,073	19,053,990
가. 출자금(주석 6)	10,972,501	11,338,609
나. 출자증권	7,716,344	7,707,150
다. 전신헌화사용권	69	72
라. 제가입권	8,159	8,159
2. 유형자산	507,988	495,064
3. 무형자산	9,029	11,949
자 산 총 계	470,584,714	480,320,289

과 목	2017 말	2016 말
부 채		
I. 유동부채	447,672,947	459,031,447
1. 화폐발행	107,907,643	97,382,263
2. 통화안정증권발행(주식 7)	170,780,140	168,372,980
3. 통화안정계정	13,500,000	18,700,000
4. 정부예금	9,936,535	7,171,459
5. 예금	98,980,294	115,133,461
가. 당좌예금	46,698,435	45,123,687
나. 결제전용예금	-	-
다. 자금조정예금	1,420,400	1,074,541
라. 별단예금	5,217,950	7,103,632
마. 외화예수금	45,643,509	61,831,601
바. 기타외화예금	-	-
6. 환매조건부매각증권(주식 8)	10,000,000	12,850,000
7. 특별인출권배분	3,659,902	3,893,999
8. 본지점환	-	-
9. 기타부채	32,908,433	35,527,285
(외환평가조정금)	(-)	(3,632,853)
II. 비유동부채	7,889,532	7,866,142
1. 차입금	-	-
2. 퇴직급여충당금	173,188	158,992
3. 출자증권발행	7,716,344	7,707,150
부 채 총 계	455,562,479	466,897,589
자 본		
I. 잉여금	15,022,235	13,422,700
1. 이익잉여금	15,022,235	13,422,700
가. 법정적립금	7,620,419	6,607,057
나. 임의적립금	3,437,768	3,437,768
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3,964,048	3,377,875
자 본 총 계	15,022,235	13,422,7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70,584,714	480,320,289

〈표 IV- 4〉

손익계산서 (제68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7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과 목	2017	2016
I. 영업수익	12,242,525	14,026,080
1. 수입이자와 할인료	8,225,834	8,580,831
(1) 유가증권이자(주석 9)	6,645,749	6,621,175
(2) 예치금이자	166,403	106,311
(3) 당좌대출이자	65	10
(4) 할인어음할인료	-	-
(5) 어음대출이자	119,323	125,652
(6) 증권대출이자	45	41
(7) 자금조정대출이자	68	169
(8)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4,248	1,750
(9) 정부대출금이자	4,539	4,065
(10)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4,313	815
(11) 수입잡이자	1,281,081	1,720,843
2. 수입수수료	151,713	111,678
3. 유가증권매매익	3,857,595	5,014,780
4. 통화안정증권상환익	7,383	-
5. 외환매매익	-	318,791
6. 지급은익	-	-
II. 영업비용	7,012,400	9,591,585
1. 지급이자와 할인료	4,558,851	5,969,013
(1) 예금이자	550,451	767,586
(2) 통화안정계정이자	211,808	161,921
(3) 통화안정증권이자	2,579,048	3,059,102
(4)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주석 10)	184,426	189,315
(5) 차입금이자	-	-
(6) 지급잡이자	1,033,118	1,791,089
2. 지급수수료	110,381	126,132
3. 유가증권매매손	1,684,984	2,758,572
4. 통화안정증권상환손	21,306	68,713

IV. 경영상황
2. 재무 현황

과 목	2017	2016
5. 외환매매손	17,529	22,097
6. 자금은손	-	-
7. 국제금융기구출연금	24,688	46,359
8. 화폐제조비	133,013	153,856
9. 퇴직급여	27,999	28,478
10. 감가상각비	25,537	23,117
11. 무형자산상각비	5,296	5,665
12. 일반관리비	402,816	389,583
Ⅲ. 영업이익	5,230,125	4,434,495
Ⅳ. 영업외수익	145,515	19,364
1. 자산처분익	367	1,970
2. 잡익	145,148	17,394
Ⅴ. 영업외비용	67,499	10,223
1. 출연금	60,000	10,000
2. 자산처분손	6,947	7
3. 잡손	552	216
Ⅵ.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5,308,141	4,443,636
Ⅶ. 법인세등	1,344,093	1,065,761
Ⅷ. 당기순이익	3,964,048	3,377,875

〈표 IV- 5〉

자본변동표 (제68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7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구 분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계
I. 2016년 1월 1일(전기초)	-	11,945,751	11,945,751
II. 정부세입 납부		-1,851,405	-1,851,405
III. 농어가기금 출연		-49,521	-49,521
IV. 당기순이익		3,377,875	3,377,875
V. 2016년 12월 31일(전기말)	-	13,422,700	13,422,700
VI. 2017년 1월 1일(당기초)	-	13,422,700	13,422,700
VII. 정부세입 납부		-2,322,970	-2,322,970
VIII. 농어가기금 출연		-41,542	-41,542
IX. 당기순이익		3,964,048	3,964,048
X. 2017년 12월 31일(당기말)	-	15,022,235	15,022,235

〈표 IV-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68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7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8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18년 2월 27일
제67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17년 2월 23일

(백만 원)

과 목	2017		2016	
I.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3,964,048		3,377,87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3,964,048		3,377,875	
II. 이익잉여금처분액		3,964,048		3,377,875
1. 법정적립금 적립	1,189,214		1,013,363	
2. 임의적립금 적립	41,467		41,542	
가. 농어가기금출연목적	(41,467)		(41,542)	
나. 손실발생대비목적	(-)		(-)	
3. 정부세입 납부	2,733,367		2,322,97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재무제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가. 개요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됩니다.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이익금 처분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석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 자산·부채의 계상 및 평가기준

자산은 취득시점에 계상하고 부채는 부담시점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취득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대상물에 대한 투자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중 주식의 취득단가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손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외화환산기준 및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1) 외화환산기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환산 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외화표시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외환매매손익은 원화를 대가로 보유외환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도한 외환의 대응원화금액에서 동 외환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차거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환매조건부매입증권계정에 계상하고,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매각증권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1)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건물은 정액법을,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각각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정액법을, 소프트웨어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부담할 국민연금납입액의 일부를 은행이 대납하고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국민연금전환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법인세등

법인세등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와 동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 분		2017 말	2016 말
과 목	종 목		
국채	국고채권	14,831,614,492,726	14,499,404,599,712
정보보증증권 등	-	-	-
외화증권	외국정부채 등	326,040,308,117,925	357,567,129,959,574
합	계	340,871,922,610,651	372,066,534,559,286

3. 예치금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 분		2017 말	2016 말
과 목	예치기관		
당좌예치금	외국상업은행 등	13,348,877,127,113	11,547,623,470,767
정기예치금	외국상업은행 등	10,492,755,332,524	14,770,490,928,485
합	계	23,841,632,459,637	26,318,114,399,252

4. 대출금

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 분		2017 말	2016 말
과 목	대여처		
어음대출	국내금융기관	17,185,503,000,000	17,328,528,000,000
정부대출금	기획재정부	1,336,200,000,000	1,289,800,000,000
국제금융기구대출금	IMF	637,110,723,750	964,496,868,875
증권대출	국내금융기관	-	1,745,247,980
합 계		19,158,813,723,750	19,584,570,116,855

5. 환매조건부매입증권

환매조건부매입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 분		2017 말	2016 말
과 목	상대처		
원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	-	-
외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	-	-
합 계		-	-

6. 출자금

출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 분		2017 말	2016 말
과 목	출자대상		
국내출자금	한국수출입은행	1,165,000,000,000	1,165,000,00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645,000,000,000	645,000,000,000
	소 계	1,810,000,000,000	1,810,000,000,000
국외출자금	국제금융기구	9,162,501,271,326	9,528,608,749,195
합 계		10,972,501,271,326	11,338,608,749,195

7. 통화안정증권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 분	2017 말	2016 말
이표채	155,820,139,748,343	153,322,980,308,065
할인채	14,960,000,000,000	15,050,000,000,000
합 계	170,780,139,748,343	168,372,980,308,065

8. 환매조건부매각증권

환매조건부매각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 분		2017 말	2016 말
과 목	상대처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내금융기관	10,000,000,000,000	12,850,000,000,000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외국투자은행 등	-	-
합 계		10,000,000,000,000	12,850,000,000,000

9.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과 목	2017	2016
원화증권이자	450,825,399,281	507,884,227,896
외화증권이자	6,194,923,681,250	6,113,290,852,334
합 계	6,645,749,080,531	6,621,175,080,230

10.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과 목	2017	2016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183,501,130,123	189,259,774,422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924,989,661	54,949,663
합 계	184,426,119,784	189,314,724,085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영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8F
07241
Tel: 02 3787 6600
Fax: 02 783 5890
ey.com/kr

Ernst & Young Han Young
Taeyoung Building, 111, Yeouigongwon-ro,
Yeongdeungpo-gu, Seoul 07241 Korea
Tel: +82 2 3787 6600
Fax: +82 2 783 5890
ey.com/kr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감사대상 재무제표

우리는 별첨된 한국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실체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은행의 재무제표는 한국은행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을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徐珍錫
서진



2018년 2월 2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형태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한국은행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 록

1. 한국은행 조직도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3. 경제일지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17년 12월 31일 현재)

전략팀, 운영리스크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협력조정팀, 지역경제팀	
법규팀, 일반법규팀	
팀	
니케이션기획팀, 커뮤니케이션운영팀(정보자료반), 뉴미디어팀, 화폐박물관팀	
교육기획팀, 경제교육운영팀	
기획팀, 정보보호팀(개인정보보호반), 품질관리팀, IT지원팀, 전산운영부(회계결제시스템팀, 경영시스템팀, 정책시스템팀, 터분석반), 신회계결제시스템구축팀, 전산관리부(주전산팀, 서버팀, 통신팀)	
팀(연구지원반),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열린상담반), 경리팀	
총괄팀, 시설운영팀, 조달관리팀	
계획팀, 경비팀	
반), (건축반)	
총괄팀, 글로벌연수팀, 국내연수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총괄팀, 동향분석팀, 거시재정팀, 국제무역팀, 산업고용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거시모형부(전망모형팀, 연구팀), 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 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기획팀(빅데이터통계연구반), 통계조사팀, 통계정보팀,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통계팀), 국민계정부(국민소득총괄팀,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총괄팀, 시스템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금융안정정보반),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금융안정부(금융안정연구팀, 금융제도연구팀)	
총괄팀(상시모니터링반), 일반은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총괄팀, 금융기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총괄팀, 시장운영팀, 자금시장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시장정보반), 주식시장팀)	
정책팀(국제결제협력반),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한은금융망개편반),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금융부(전자금융기획팀, 전자금융조사팀)	
팀, 증권팀	
정책팀, 발권기획팀, 화폐수급팀(화폐수급지원반), 화폐관리1팀, 화폐관리2팀, 화폐연구팀	
총괄팀, 외환회계팀, 외환시장팀, 국제금융부(자본이동분석팀, 국제금융연구팀), 외환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정보팀)	
워싱턴), 프랑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홍콩, 상해)	
총괄팀, 국제기구팀, 아태협력팀, 금융협력팀, 교류협력팀, 지식교류팀	
기획팀, 리스크관리팀, 투자운용1부(운용전략팀, 외환운용팀, 위탁운용팀), 투자운용2부(글로벌정부채1팀, 글로벌정부채2팀, 개별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운용지원부(자금결제팀, 외자시스템팀)	
조정실, 금융통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강릉, 울산, 포항, 강남	총무팀 ¹⁾ , 기획조사부(기획금융팀, 경제조사팀) ²⁾ , 기획조사팀 ³⁾ , 업무팀, 화폐관리팀 ⁴⁾ , 화폐관리반 ⁵⁾
기획팀(감사협력반), 경영관리감사팀, 정책현업감사팀, 외환국제감사팀, 조사통계감사팀, 전산정보감사팀	

제주, 경기본부 3) 목포, 전북, 충북, 인천, 경남, 강릉, 울산, 포항본부 4)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본부 5) 제주본부업무팀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차 례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17년 1월 13일)	120
◇ 통화정책방향 (2017년 2월 23일)	121
◇ 통화정책방향 (2017년 4월 13일)	122
◇ 통화정책방향 (2017년 5월 25일)	123
◇ 통화정책방향 (2017년 7월 13일)	124
◇ 통화정책방향 (2017년 8월 31일)	125
◇ 통화정책방향 (2017년 10월 19일)	126
◇ 통화정책방향 (2017년 11월 30일)	127
◇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7년 12월 28일)	128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17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17년 1월 13일)	135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 (2017년 1월 26일)	136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7년 1월 26일)	136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17년 1월 26일)	136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7년 8월 10일)	137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2017년 8월 10일)	137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7년 12월 7일)	137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17년 12월 7일)	137

(3)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3월 23일)	138
◇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6월 22일)	142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9월 21일)	146
◇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12월 14일)	149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17년 1월 13일, 제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부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국채금리의 오름세가 진정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내수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황은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다소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GDP 성장률은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겠지만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의한 하방압력

이 완화되면서 1%대 중반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져 2017년 중반 경에는 물가안정목표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지난해 10월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은행대출의 경우 최근 들어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7년 2월 23일, 제4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도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였으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황은 취업자수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전망과 비교하면, 소비는 심리 위축 지속 등으로 전망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에 가까운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나, 농축수산물가격의 안정세 회복 등으로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 수준(1.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지속되면서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신정부의 환율 관련 정책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비은행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7년 4월 13일, 제7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가 여전히 저조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황은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부진이 완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GDP 성장률은 1월 전망치(2.5%)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완화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었으나,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 미흡 등이 수출과 내수의 개선 속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후반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치(1.8%)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된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주가 및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달러화 강세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비은행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지방에서는 계속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주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7년 5월 25일, 제10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실업률은 구직활동이 확대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과 투자는 종전 전망보다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4월 전망수준(1.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장기시장금리는 낮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상승하다가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 등으로 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될 것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7년 7월 13일, 제13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유가 등락,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 정부 정책방향 및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국제유가 향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하였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GDP 성장률은 4월 전망치(2.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예

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4월 전망수준(1.9%)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상당폭 오르고,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와 동조하여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주가는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와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7년 8월 31일, 제16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투자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7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는 고용개선 및 추경집행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며, 설비투자는 IT 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전망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출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서비스수출 둔화로,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전망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지난해 전기로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대 초반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7월 전망 수준(1.9%)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주가, 환율 및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7년 10월 19일, 제19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대 등으로 국제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주가의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일시적 요인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GDP 성장률은 금년에는 7월 전망치(2.8%)를 상회하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도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

로 2%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전기로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의 소멸 등으로 당분간 1%대 후반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1%대 중반을 이어가다가 내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등락하였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 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으나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17년 11월 30일, 제2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가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나가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 대중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호조를 지속하면서 지난 10월 전망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지난해 전기로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멸 등으로 1%대 후반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장기시장금리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상승하였으나,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경기 회복세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7년 12월 28일, 제25차)

1.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경제성장

- 국내경제는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2018년 중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7년(3% 중반)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이 고용 및 기업투자 개선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신흥시장국의 성장모멘텀이 강화될 전망

-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세계경기 개선 등으로 소폭 확대될 전망

- 주요국의 더딘 임금상승세, 저물가 상황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약화 등이 물가오름세를 제약할 소지

- 국내경제는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마이너스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지난 10월 전망 시의 예상(내년 하반기)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

□ 한편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 대중 교역여건 개선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한 하방위험도 잠재

○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성장의 상·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2. 물가

● 물가는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증대 등 상승요인과 석유류가격

의 기저효과 축소 등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16~18년 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

○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도 1%대 후반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전망

□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3.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은 국내외 경기회복세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변동성 확대 요인이 상존

□ 금융·외환시장은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 등으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대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 및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

○ 미 연준, ECB, 영란은행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그동안 큰 폭 상승한 자산가격의 조정압력이 커지면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북한 리스크 재부각, 유럽 및 중동지역 정정 불안 등 돌발상황 발생 시 국내외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

- 다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은행 및 기업의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의 순유입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체로 양호할 전망

4. 금융안정

-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증가가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신용공급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은행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 관련 대책,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기업대출은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은행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운용 확대, 경기 개선에 따른 신용경계감 완화 등으로 다소 확대될 전망

- 비은행 가계대출은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시행, 총부채상환비율 등 추가 규제 도입 예정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 둔화흐름이 이어질 전망

-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특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 및 신용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취약

-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시장금리 상승,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II.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
- 대출제도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효율적 운용을 도모
-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 발생 시 적극 대응

1. 기준금리 운용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
 -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 성장 및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하여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
 - 특히 성장과 물가의 관계 변화를 주시하면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물가

의 기초적 흐름을 점검

* 각종 근원물가 및 보조 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국제유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GDP갭, 고용·제조업의 유효생산능력 지표 등

- (금융안정 유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등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
 -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성장이 제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가계부채 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
 - 자본유출입 동향, 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금융안정 리스크가 성장·물가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유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2016년 공표)에 대해 수정·보완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 * 정책의 목적과 정책운용시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지침의 변경 필요성 등(참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참조
- ### 2.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여건 정기 점검
-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정착을 위하여 2019

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여건을 정기 점검(현재 3년 주기)

* 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

○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설명책임, 점검주기 등 제반 이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대출제도의 지속적 합리화)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설정방식 등을 점검

○ 물가안정목표제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물가안정목표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의 공감대를 형성

□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 국내외 충격발생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

○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제도에 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

○ 금융·외환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비상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불안요인별 상황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반영·보완하여 유사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

3.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 합리화

□ (신용경로 보완기능 강화 노력 지속)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불안요인 발생 시 「통화금융대책반」 등 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필요 시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의지 및 대응계획 등을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여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

○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용

○ 금리, 환율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특정 방향으로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 불안이 심화될 경우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여 시장안정을 도모

○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비율 제도 운용 관련 사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원활한 유동성조절 기반 확충)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한 신속적인 유동성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채 보유규모를 확대
 - 보유 국고채 만기도래(연중 2.2조 원), 단기 유동성조절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
-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역내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국제기구·협약체의 논의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및 금융안정을 도모
 - ASEAN+3의 CMIM 기능 제고, G20의 IMF 대출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
-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시장 구조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
- 정부 및 감독당국은 물론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
- (금융안정보고서 개선) 분석의 체계화 및 리스크 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 평가의 정도를 제고
 - 공동검사 결과와의 연계 분석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권 전체에 대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축
-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개선)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점검 강화) 국내외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 금융안정회의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복원력,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관련 정부 대책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금융회사의 자금이체 편의와 국외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가동 목표)을 차질 없이 수행
- 금융보안 위협 및 자연재난에 대응한 한은금융망 업무 복원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를 개편

□ (지급결제서비스 발전 촉진) 디지털 혁신 등에 발맞추어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을 촉진

○ 모바일 현금카드 이용 활성화 등 지급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추진

○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 관련 정책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계당국 등이 해당사자들과 협력을 강화

〈참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한편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제와의 관계)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

○ (금융안정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17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17년 1월 13일, 제1차)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구분	회계별	대출금 한도(억 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대출금	통합계정	300,000	2018년 1월 20일	대출취급기한: 2017년 12월 31일 (단,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2016년 대출금 중 미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18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17년 12월 31일	
합계		400,000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일 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 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가급적 재정증권의 시장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초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아울러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2017년 1월 13일(금)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 (2017년 1월 26일, 제2차)

□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 조정으로 매월 기준금리가 결정·공표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부분을 변경 (“매월 공표하는” → “공표하는”)

○ 기준금리가 정기적으로 연 8회 공표되겠지만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점도 고려

□ 시행일자: 2017년 1월 26일(목)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7년 1월 26일, 제2차)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운용실적 보고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

□ 시행일자: 2017년 1월 26일(목)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17년 1월 26일, 제2차)

□ 공개시장운영 결과 보고주기를 분기로 변경(제53조제1호)

○ 분기 공개시장운영 결과를 익분기 초월(1·4·7·10월)에 보고

□ 시행일자: 2017년 1월 26일(목)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7년 8월 10일, 제15차)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신설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제9조)

□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및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관련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2조)

□ 시행일자: 2017년 9월 1일(금)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2017년 8월 10일, 제15차)

□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25조 원으로 하고,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6조 원으로 한다.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5.9조 원으로 한다.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11조 원으로 한다.
-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0.5

조 원으로 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1.5조 원으로 한다.
- 한도 유보분은 0.1조 원으로 한다.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17년 12월 7일, 제23차)

□ 한국은행 대출담보증권에 MBS를 포함하는 기간을 1년 연장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4조제1항제4호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부칙 개정)

□ 시행일자: 2017년 12월 7일(목)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17년 12월 7일, 제23차)

□ MBS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 연장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부칙 개정)

□ 시행일자: 2017년 12월 7일(목)

(3)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3월 23일, 제6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18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3월 1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에서 부문별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졌으나, 시스템 리스크의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서 시계열 차원의 경기순응성과 횡단면 차원의 금융기관 상호 연계성에 대한 점검·분석과 종합적인 평가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지난 수년간 실물경기 둔화에 대응한 금융완화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사이클이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이 어떠한 리스크에 직면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가계 및 기업 신용사이클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GDP 대비 민간

신용 갭이 크지 않은 가운데 가계 및 기업 신용사이클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분포 측면에서 고소득 및 고신용 차주 또는 가구의 부채점유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가계부채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가계부채 누증의 리스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개별 차주 또는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도는 물론, 금융 및 실물자산의 수준 등 다양한 미시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고정금리부 가계대출 비중의 확대가 가계부문의 금리상승 리스크는 축소시킨 반면 금융기관의 관련 리스크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취급하거나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되는 5년 주기의 변동금리 대출 등에 대해 만기가 비슷한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헤지(hedge)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대출을 포함

한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이 급증하였으나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러한 구조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 시점에서 상호금융의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관련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점검과 관련하여 통계상의 제약으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 추정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을 집계하였는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없이 가계대출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받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 또는 대출용도에 대한 미시정보가 현재 충분하지 못하여 차주가 자영업자인지 일반 가계인지 정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과 이들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의 합을 자영업자 대출로 볼 경우 관련 통계의 일관성 유지에 장점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와 관련하여 은행들이 익스포저(exposure)를 확대하면서도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것이 개별은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는 리스크 확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미시감독 측면만을 강조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의 완화 방안을 감독당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축소에 초점을 두고 대출을 취급할 경우 기업에 대한 자금증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동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저평가하는데 기인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도율이나 부도시 손실률 등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을 둘러싼 경

영여건 변화가 위험가중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연구와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시 다를 필요성이 있는 이슈로서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연계대출의 부실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폭 조정에 따른 거주자 해외증권 투자자금의 손실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여러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시의적절한 분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나, 금융안정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금융사이클의 변화를 적시 파악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민간신용 증가율 외에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측면, 특히 GDP 대비 민간신용 갭보다 금융사이클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예측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장성수신 등 비핵심부채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비핵심부채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의 비핵심부채가 안정되

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외채의 증가규모도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금융시스템의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가계 및 기업 신용이 부동산부문에 쏠리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경기의 향방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주택가격의 변화가 금융부문과 상호작용하여 부동산 관련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민간신용 사이클과 부동산가격 사이클을 결합하여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완화적인 금융사이클이 국내 채권시장의 장기금리 하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관련 여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자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또한 동 위원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배경에는 가계의 소득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전세의 월세전환,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향후 추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 속도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규제만으로

안정될 수 있는지, 경기순환이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GDP 대비 민간신용 갭이 금융사이클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나 그 자체만으로 민간신용 확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우리나라의 민간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DSR 비율)이 크지 않은 데다 보증과 연계된 신용규모가 상당하여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나아가 주택시장에서는 분양 및 완공되는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주택실질 수요는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과 관련한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에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미시감독당국보다는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분석 능력을 갖춘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안정 상황점검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융상황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경제와 관련한 분석에도 중점을 둘 필

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하여 앞서 발언한 위원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 비율의 증가 배경에는 부채, 소득, 주택금융 방식, 부동산임대시장의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장기 전망과 안정적 관리 방안에 대해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현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보다 속보성 있게 편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동 위원은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파급경로도 제약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약화 현상을 주목하여 불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와 금리상승시 비은행금융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해 잘 분석해 주었다고 평가한 후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 이후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담보·보증부대출 관행도 여전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행태는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인 만큼 금융산업의 국제 트렌드(trend) 등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일차적으로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의 의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간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는데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산출갭(output gap)과 물가갭 등을 주요 지표로서 고려하는 것과 달리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순환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지표를 찾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안정과 관련한 전통적 지표인 환율변동성, 자본유출입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금융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부채의 건전성을 경제주체별로 점검·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시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를 판단하고 위기를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핵심부채와 같이 새로운 지표 및 분석 방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는 동 사항들을 논의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금번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현재 금융안정의 핵심 이슈가 가계부채이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외에 여타 미시 데이터를 활용·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금융불안이 종금사, 투신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금융부문에서 주로 초래되었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으나 아직 관련 정보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은행금융부문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6월 22일, 제12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의 사전심의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방식에 있어 개선사항과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의 사전심의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행내 인식 공유 확대, 보고서 내용의 사전 검증 등을 위해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보가 주관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협의회를 위원협의회에 앞서 개최하였음. 둘째, 종전과 달리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 당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국회 앞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의 체계는 지난해 12월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우리 경제의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보고서의 본문, 참고자료, 현안분석 등 전반에 걸쳐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상황, 누증요인, 금리 상승시의 영향, 그리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저금리 상황에 적응해 왔던 경제주체들이 향후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였음.

이어서 지난 6.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전반적으로 잘 평가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많이 다루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사

실이나, 제반 리스크가 억눌려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변동성 측면에서 낮아져 보이지만 수준 자체는 높은 상태일 수 있으며, 향후 금리상승 등 국면 전환시 신용 또는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성을 통한 횡단면 측면의 리스크를 분석함에 있어 양쪽 측면의 분석과 함께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업권간 어떻게 파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시계열 측면이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분석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금번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계대출 차주의 신용등급 고평가, 부동산 익스포저(exposure)의 급증,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추구 강화 등의 내용을 금융의 경기순응성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음으로 복원력 부문에서 일부 위원은 은행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할 때 금리상승 이외에 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잠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율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의 추세적 상승 현상이 우리나라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현안분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의 누증 요인을 저금리, 부동산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분석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만, 일부 위원들은 최근 2~3년간의 가계부채 누증이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호조, 공적보증의 확대 등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됨으로써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이 높아졌다는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년 들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신용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인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한 8월

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대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8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번 LTV·DTI 강화 조치와 함께 향후 DSR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뿐만 아니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DSR비율 하락) 차주의 장기대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의 구조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가계부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더라도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기불일치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기 모기지(mortgage) 시장을 발전시켜 가계의 금리위험과 금융기관의 만기불일치 위험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진전사항이 어떠한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커버드본드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으나 아직 활발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주택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할 경우 커버드본드와 같은 민간 모기지 시장의 자생적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 시계에서 주택금융 인프라 관련 연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LTV·DTI 등 부채 관련 규제수단을 보다 체계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관련 정책을 금융순환 국면 등과 연계하여 일정부분 준칙에 따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완화적 금융기조 하에서는 금융환경을 둘러싼 잠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주택시장의 경우 인구고령화, 은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공급규모에 비해 실질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대출 건전성이 언제든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수급 상황과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증권투자가 활발한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 감소 및 미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주식, 채권 등 글로벌 금융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 해외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고, 나아가 국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가계 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과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와 같은 시의성 있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유용한 분석을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금융안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중요한데 그간 주택 및 주택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발생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관계당국에 적절한 정책방향을 권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8월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신규주택 분양물량 공급 증가 등 주택시장의 약세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보고서가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반적

으로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공적 보증기관의 사업 중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차단해야 하는 방안, 둘째, 가계부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LTV·DTI·DSR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셋째,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세 번째 대응방안은 가계부채 이외에 경기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정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더욱이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우려해야 할 사항은 상환능력이 충분한 가계의 합리적 판단에 의거한 가계부채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시장왜곡에 의해 증가하는 가계부채라는 점에서 공공정책의 규율과 금융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관계당국과의 협의시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고서 체계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산물이며 통화정책 의결문의 확장판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처럼, 금융안정보고서 역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이러한 선상에서 보고서의 개황부문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과 평가, 시사점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할 필요

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보고서의 현안분석과 관련하여 2015년 이후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요인으로 저금리, LTV·DTI 규제 완화, 공적보증 확대 등 당시의 완화적 정책 환경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으나,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이로 인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추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으로 제시한 인구구조와 관련해서는 긴 시계에서 보면 의미가 있겠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적극차입 연령층인 30~50대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분석의 설명력이 낮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2년간의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를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따라서 차기 회의에서는 동 사항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 관련 이슈로서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구조,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연령별 부채구조 등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9월 21일, 제18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4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지난 9월 1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민간신용 전체의 레버리지 (leverage)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가계와 기업신용 레버리지의 움직임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신용 레버리지 움직임에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와도 관계되며, 최근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가계신용에 대한 쓸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가계 및 기업신용에 대한 리스크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이에 대해 현재 정부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가계신용 취급 인센티브 (incentive)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첨언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분석은 최근 정부 감독당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의 문제는 차주의 과거 신용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도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등 최근의 상황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효한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

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과 관련하여 특히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에 대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기업신용 둔화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신용의 공급 및 수요 측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자산시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히 외국인 주체별 투자의 특성과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최근 여신전문회사의 수익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카드사태에 비추어 관련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여신전문회사의 수익성이 다소 낮아진 측면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이들 회사의 자본적정성 등 복원력은 양호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만 카드사가 최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하여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덧붙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지수와 관련하여

최근의 자본시장 동향이나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동 지수의 움직임이 안정적인데 향후 조기경보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8.2 대책 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주택 및 건설 경기의 외생적 충격을 보다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이들 대책이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대출의 차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 경로에 대해 상호거래의 상품별 특성과 이에 따른 리스크 전이경로를 상세히 잘 분석하였으며 향후 이를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투자펀드의 경우 부도확률 추정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관련 리스크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보다 현실에 부합한 리스크 측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분석모형을 개선하고 향후 개발 예정인 비은행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이번 보고서를 보면 최근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보고서의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지난 위원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검토해 봐야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음.

먼저, 이번 정부의 8.2 대책 등이 향후 국내 가계부채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분석해 주었는데, 비단 금번 대책뿐만 아니라 보다 긴 시계에서 보더라도 국내 주택 및 건설 경기는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분석을 심도 있게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하고, 특히 지난 3~4년간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exposure)가 유의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 및 건설 경기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 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 P/F 등의 신용순환과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새도우뱅크(shadow banking) 부문 등의 수익성과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 부문별 점검 외에도 전체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둘째, 예상대로 오는 10월부터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시작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가 글로벌 금융사

이클의 변화를 통해 신흥국과 국내 금융시스템에 파급되는 효과(spill-over)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건전성과 수익성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완화적 금융여건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나 앞으로 글로벌 금융순환의 국면 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우호적 대외여건도 점차 긴축화되면 그간 높은 위험추구 성향과 레버리지 확대를 추구해 온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누적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연준뿐만 아니라 ECB 등의 테이퍼링(tapering)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파급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에 힘쓰는 한편 필요 시에는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당국에 대한 정책 제언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제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전체 민간신용의 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기업신용의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점, 금융안정지수가 주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 점,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자와 유사한 거래행태를 보일 경우 금융시장의 충격이 증폭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였음. 아울러 미 연준의 자산팽창 이후 미국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완화적 금융기조 하에서는

금융지표가 대체로 양호하므로 이를 통해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후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해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미 연준, ECB,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전개 양상과 방식이 서로 상이할 텐데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국내 금융시스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동산 대책의 영향, 취약차주 문제 등 가계부채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 (2017년 12월 14일, 제24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의 사전심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의 사전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이번부터 보고서의 집필방향 설정 및 작성내용 검토 단계에서 두 번에 걸쳐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보 주관 하에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행내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한편 작성내용의 사전검증을 강화하였음.

둘째, 금융안정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협의회 시 보고서의 개황부분을 집중 심의하는 순서를 마련하여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이어서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의 체계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우리경제의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보고서 작성방향은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저금리에 적응해 온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보고서 전반에 걸쳐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음.

다음으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전반적으로 잘 평가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많이 다루었다고 언급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법정보고서라는 취지에 유념하여 분석의 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안정 관련 평가들을 통화정책에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위원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중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나, 일부 위원은 금리가 자연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신용 레버리지(leverage)에 대한 평가 시 신용 갭(gap)이 신용사이클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갖는 의미나 리스크 수준에 대한 분석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평가 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금리의 장기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일부 위원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 시 지역별 주택가격, 거래량, 분양 및 준공물량 등 동향 분석에 더해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시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확보한 미시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검사와 금융안정보고서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복원력 부분과 관련하여 외생적인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잘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의 상호연계성, 시장참가자의 쏠림현상 등으로 리스크가 내생적으로 확대되는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시장국의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대내

외 충격이 금융기관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보다 비은행권에 더 클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다주택자 중 LTV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 부족자금 조달 행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현안분석에서 일부 위원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관련하여 금리상승의 영향에 대한 정태적 분석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는 소득, 가계부채, DSR 등의 변화까지 동시에 고려한 동태적 분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국내 가계신용 대출시장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앞으로 신용평가의 경기순응적 행태에 따른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차주의 신용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서 신용대출의 증가 가능성 등 다양한 연관 주제로 분석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신용정보가 부족한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상이 시장원리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업권 간 리스크 전이경로 관련 분석 내용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분석지표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는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는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정부대책 등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monitoring)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이러한 정책 전환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제안도 미시적인 측면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안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금안회의 격상에 따라 금융안정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 경제주체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금안회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금

융안정 리스크 평가가 적시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였음.

우선, 금융안정보고서의 리스크 평가부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시장·상품 간 횡단면적인 연계성, 동태적 측면에서 위험의 내생적 전이경로, 실물경기와 글로벌 금융순환과의 상호작용 등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분석능력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시건전성 감독 측면과 구분되는 한국은행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결과와 조기경보를 적절한 채널을 통해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OFR(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보고서에 거시경제, 시장, 신용, 지급능력 및 레버리지, 자금조달 및 유동성, 위험전이 등 6개 영역에 대한 6단계 리스크 평가결과를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Financial System Vulnerability Heat Map을 발표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의 경우 중장기 시계에서 동태적 충격 시나리오(scenario) 하에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결과를 발표하여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부문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평가는 다소 미흡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태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앞서 언급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영란은행과 스웨덴 중앙은행처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관부서와 유관부서 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협업을 통한 분석기능 강화를 당부하였음.

3. 경제일지

(1) 통화 · 금융 · 재정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 ·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관세기구의 HS(품목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FTA협정관세율표 개정 및 수출업체 편의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사후제출 가능) 개선 ▷ 기획재정부, 2016년도 세법개정안 일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 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2017년 7월에 중복 · 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개통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대상 및 적용요건 등 기준 마련 -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개선 -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 제도 개선 - 서민 · 중산층 지원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실효성 제고 -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 금융소득 과세 강화 - 비상장주식 등 평가제도 개선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기타 관세 · 간접세 분야 개선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 등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등,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개정안을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한 LTV·DTI 각 40% 적용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생애최초 8천만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각 10% 포인트씩 완화 -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을시 LTV·DTI 각 10% 포인트씩 강화 -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하여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17 시행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마련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금융증개지원대출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6년 12월 공표)에서 밝힌 기본방향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기업 구조 조정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감면액 인상(2017년 38조 7천억 원 → 2018년 39조 8천억 원), 국세감면을 인하(13.3% → 12.9%)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일부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①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③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형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8월 19일 시행), 개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을 도입 ▷ 금융위원회, 개정된 신탁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만 19세 → 만 18세) ○ 우수 신탁 공동유대 범위 확대를 통한 신탁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 視界에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 모색 ○ 특히 총량측면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DTI를 도입하고 전금융권 여신 관리 지표로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시행, 자치역량 제고 등을 통해 로드맵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4로 개편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 -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예정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 소득) **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DSR(=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적용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11. 28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2018년 1월 1일)에 대비하여 마련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반영
11. 29	▷ 정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발생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소각(일회적·한시적 조치)을 통해 그간 누적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 향후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 관리·매각 시스템 내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국민행복기금 잔여채무자 재기 지원 및 향후 발생 수익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근본적인 운영방식 개선
11. 30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12. 5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신설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18년 시행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1년 유예)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지원 기간 단축(2019년 폐지) ○ 법인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위 일정 기한까지 유지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 - 신설된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상향(3천억 원 초과) 조정 -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국외원천소득의 14%) 현행 유지
12. 6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447조 2천억 원), 총지출(428조 8억 원), 국가채무(708조 2천억 원) 확정 ○ 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
12. 13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12. 20 ▷ 금융위원회,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 대부업법상의 ①금전대부업(대출), ②대부중개업(중개), ③매입채권추심업(추심)
 ○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
12. 21 ▷ 기획재정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
 ○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
12. 28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 실명제 실시
 ○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 특수활동비 집행 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국가보조금의 집행을 정비하여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2) 무역 · 외환

1. 25	▷ 한국은행,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원/링깃 통화스왑계약 연장 ○ 기존 계약(2013년 10월 20일 체결)과 동일한 규모(5조 원/150억 링깃)로 3년(2017년 1월 25일~2020년 1월 24일) 연장
2. 8	▷ 한국은행, 호주 중앙은행과 원/호주달러 통화스왑계약 규모 확대 및 연장 ○ 기존 계약(2014년 2월 23일 체결) 규모(5조 원/50억 호주달러)를 확대(9조 원/100억 호주달러)하여 3년(2017년 2월 8일~2020년 2월 7일) 연장
3. 6	▷ 한국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원/루피아 통화스왑계약 연장 ○ 기존 계약과 동일한 규모(10조 7천억 원/115조 루피아)로 3년(2017년 3월 6일~2020년 3월 5일) 연장
7. 18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소비자보호 방안 등 ○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 구체화
10. 11	▷ 한국은행, 중국 인민은행과 원/위안 통화스왑계약 연장 ○ 기존 계약과 동일한 규모(64조 원/3,600억 위안)로 3년(2017년 10월 11일~2020년 10월 10일) 연장
11. 15	▷ 한국은행, 캐나다 중앙은행과 원/캐나다달러 통화스왑계약 체결 ○ 사전에 최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 계약(standing agreement)

(3) 산업·고용 및 기타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품 공급확대 및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 및 가계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전통시장 지원 확대 및 여가활동 촉진 등을 추진 ○ 중소기업 설 자금지원 확대, 체불임금 집중해소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심리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30% → 40%) - 봄 여행주간 확대 및 국내 레저산업 육성, 3조 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 ○ 가계소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구직급여 상한액(4만 3천 원 → 5만 원) 인상 - 소액체당금 상한(300만 원 → 400만 원) 인상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지원 확대 ○ 가계·자영업자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자금대출(1억 2천만 원 → 1억 3천만 원) 및 월세대출 한도(월 30만 원 → 40만 원) 확대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인상(연 10만 원 → 20만 원) -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 파격 할인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5건, 2조 1천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광역관광 확충, 케이블카 규제 완화,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규제 개선 ○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및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창업 활성화 등 추진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컨설팅으로 기업의 변화 유도, 다양한 근로방식 도입 지원, 유연근무제를 통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추진

5. 24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및 닭고기 가격 안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은 6월 초 약 10일간 농협을 통해 400~500만 개를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닭고기는 5월 24일부터 정부 비축물량(2,100톤)을 긴급 방출하는 한편 민간 비축물량(6천 톤)의 조속한 시장공급을 유도
5. 31	▷ 산업통상자원부 등, 노후 석탄발전기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 8기를 6월 한 달간 가동정지할 계획
6. 29	▷ 국토교통부,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밀양에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나노 기술이 집약된 나노 융합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
6. 30	▷ 국토교통부, 서울~양양 고속도로 완전 개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양양 고속도로 150.2km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양양 간 71.7km를 6월 30일 오후 8시에 개통
7. 15	▷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최저임금 수준을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의결
7. 16	▷ 기획재정부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7. 19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달성을 위한 5대 국정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7. 25	▷ 기획재정부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주도 성장: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 - 공정 경제: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 혁신 성장: 3% 성장능력 갖춘 경제 유지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에너지 전환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안에 대한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마련(앞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탈원전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 및 종합적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개정(안)이 제40회 국무회의(9월 12일 개최)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7년 추석부터 명절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우선공급하기 위해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가점제를 통한 예비입주자 우선 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9.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집행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부담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바우처 확대, 교통·통신·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지원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활성화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분사창업 활성화 ○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 정부,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토대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마련 ○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인프라 구축, 문화적 저변 확산, 제조창업 기반 마련을 추진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기초* 하에서 영세업체들이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도록 제도·전달체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개정 「주택법」 및 하위법령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 마련(법률) ○ 지방 민간택지 중 과열지역, 위축지역, 기타지역의 전매제한 기간 지정(시행령) ○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 마련(시행규칙)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3만불 시대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개선 위해 일자리(量·質)·소득 여건 개선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 -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전략: ①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②혁신성장, ③공정경제 ○ 2대 기반: ①거시경제 안정, ②중장기 도전 대응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I.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2. 조직 가. 금융통화위원회 나. 집행간부 및 감사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통화정책국 금융통화위원회실 비서실 기획협력국	이지혜, 이병록 김종원 김진용 신지선, 이현아
II. 경제동향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나. 국내경제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나. 국내금융시장	조사국 조사국 지역협력실 조사국 금융시장국 국제국	이창기, 김윤겸 진찬일, 장희창 김경근, 정성엽 이종성, 김병조 이창기, 김윤겸 나영인 백봉현
III. 업무현황 1. 중기전략 2. 통화신용정책 가. 물가안정목표 나. 기준금리 다. 여수신 라. 공개시장운영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3. 금융안정업무 가. 금융안정 상황 분석·점검 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라.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4. 발권업무 가. 화폐 발행 나. 화폐 유통 다. 국내외 협력	기획협력국 조사국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 금융결제국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금융통화위원회실 금융안정국 금융검사실 국제국 국제협력국 시장총괄팀 발권국 발권국 발권국	최용운 이동원 임건태 임건태 우동진 김보경 임건태 김종원 박정민 윤현철 구종환, 김민규 최문성, 김주연 나영인 이동규 구형관 이동규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5. 지급결제업무 가. 한은금융망 운영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6. 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가. 외국환업무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다. 국제협력업무 7. 조사통계업무 가. 조사연구업무 나. 통계업무 8. 국고 및 증권업무 가. 국고업무 나. 증권업무 다. 기금관리업무 9.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나. 대국민 경제교육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국제국 외자운용원 국제협력국 조사국 경제연구원 지역협력실 경제통계국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국고증권실 커뮤니케이션국 경제교육실	배문선 배문선 배문선 배문선 구종환 최은지 강지연 최인협 김재영 김용현 전기영 문현주 김정순 김정순 김상욱, 이규환 손영희 오권영
IV. 경영상황 1. 조직 운영 가. 조직 체계 나. 조직 운영방식 다. 교육 훈련 라. 고용 확대 및 채용 공정성 제고 마.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바. IT시스템 고도화 사. 통합별관 건축 추진 2. 재무 현황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 인재개발원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 전산정보국 별관건축본부 기획협력국	신지선, 이현아 신지선, 이현아 최진만 최창훈 최창훈 이혜림 고경철, 임태균 전은희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3. 경제일지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기획협력국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국 커뮤니케이션국	신지선, 이현아 김종원 김유정 이규환
보고서 작성총괄	커뮤니케이션국	손진국, 한정훈 이규환, 최유정

2017년도 연차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감 수 신인석

편집인 천병철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www.bok.or.kr

발행일 2018년 3월 30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 이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조사·연구자료 > 주요 보고서 > 연차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전화 02-759-4520, 이메일 publicinfo@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SN 1975-4922

